



지난 6월 25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옛 동창회관 부지에서 역사적인 장학빌딩 기공식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2~10면>

역사적인 장학빌딩 기공!

너도나도 벽돌 한 장이라도



<장학빌딩 조감도>

신·구관 비교	
신 관	구 관
<연 면 적>	
21,289.57㎡	3,745.92㎡
<건축면적>	
813.40㎡	629.91㎡
<건물규모>	
지상 19층	지상 5층
지하 6층	지하 1층
<주차대수>	
1백50대	20대



옛 동창회관

관악출추

대망의 장학빌딩이 6월 25일에 착공됐다. 유서 깊은 서울대동창회관터에 지하 6층 지상 19층의 장대한 건물이 2010년 말이면 준공될 예정이다. 1987년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동창회 건물을 지었을 때도 동창들의 기대는 컸었는데 이제 그 몇 배 이상의 최신건물을 착공하게 되어 기쁘기 짝이 없다. 서울대학교와 동창회의 장래에 서광이 비추기 시작했다고 하겠다.

이제까지의 동창회관의 외관은 아름다웠지만, 임대면적이 좁아 운영비용을 정산하면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장학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 재단법인 관악회에서 주로 해온 장학사업은 그 규모가 5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새 건물이 완공되면 연 38억원의 순수익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 수익은 모교 지원 사업에 사용되는데, 재학생에게 20억원 이상의 장학금 지급과 모교 교수님들의 연구활동비로 18억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계획은 21세기의 모교 발전을 위해 획기

장학빌딩 착공과 준공에의 기대

적인 것이며 앞으로 모교의 독립법인화에도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계획이다. 그동안 장학빌딩 건축을 위해 10만원 이상을 내 준 회원과 10억원 이상을 내 준 거액기부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마련해 동창들의 긍지를 드높이게 됐다. 장학빌딩은 서울대인의 단합의 상징으로 건립되는 것이며 앞으로 서울대인의 위상에 맞는 친교와 학문교류의 센터가 될 것이 기대된다.

장학빌딩에는 전시갤러리, 예식홀, 콘서트홀, 회의실, 연회장 등이 마련되며, 명예의 전당이 들어서게 된다. 동창회 명예의 전당에는 장학빌딩 건립기증자 뿐만 아니라

동창회와 모교를 빛낸 동문들까지 기리는 장소가 될 것이고, 동창들이 긍지를 느끼고 모교 후원, 동창회 발전, 사회공헌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장소가 될 것이다.

정치의 중추인 여의도에 근접한 공덕동 비즈니스가의 스카이라인을 빛낼 장학빌딩의 착공을 축하하면서, 무사히 완공돼 동창들의 친교의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모교에 대한 지원과 모교생에 대한 장학사업이 하루빨리 시작되기를 바란다.

(金哲洙논설위원)

느리나무광장

사람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이다. 기억을 상실한 사람들이 겪는 큰 고통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데서 온다. 가족과 친구를 잊고, 그동안 쌓아 온 수많은 경험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 해보자.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나라고 한다면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사실 상상도 잘 안 된다.

기억은 다른 말로 과거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다. 뇌 속에 저장된 이전의 경험 지식 관계 등이 내가 알고 작동될 때 자아도 성격도 성립된다. 기억 능력을 잃은 사람은 본래의 성격도 상실한다고 한다.

동문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것이다. 과거를 공유하는, 특히나 어리고 젊은 학창 시절을 서로 채우고 만들어 주던 사람들, 그리고 같은 뿌리로 과거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동문이다. 어떤 이의 회고담이 50년 전

에 했던 일들은 기억하고 있으나 5주 전에 했던 일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듯이 기억은 관심과 흥미, 신념, 열정에 따라 달라진다. 어리고 젊은 시절이 소중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동문을 말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 서로의 중요한 일 부분이 돼 있음을 알게 된다.

‘장학빌딩’이란 새 이름으로

趙在鏞
한국일보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후일 아이를 데리고 관악캠퍼스를 다시 가 본 것은 15년도 더 전이었다. 기억에 남았던 길이나 공간이면 모든 곳에 예외 없이 건물들로 꽉 찬 모습에 놀라 숨이 막히는 느낌이였다. 아마도 기억이 망가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 변화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 같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지금이야 그 때와도 또 달라져 있을 테니 그런 기억이나 기분은 그 것일 뿐이다. 어린 동문들이 한창 서로의 동문을 만들어 가고 있을 모습으로 기억은 더 풍부해진다.

동창회관이 ‘장학빌딩’이라는 새 이름으로 거듭나 ‘동창사’를 새로 쓰게 된다. 회관 명칭을 장학빌딩이라고 개칭한 것부터가 내실과 실질, 과거와 미래를 이어갈 총동창회의 업그레이드다. 건립비 3백억원을 성공적으로 모금해 기공을 성사시킨 동문들과 총동창회에 동문으로서 감사한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기공은 시작이다. 2010년 멋진 준공으로 성공의 완성이 주는 기쁨을 또 한번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폭탄주는 ‘우리’와 ‘타자’를 구별짓는 의식이라고도 하지만 오늘쯤은 그런 폭탄주를 돌려도 될 듯 싶다.

관악시단

<축, 장학빌딩 기공>

각인

金正煥(영문72-80) 시인

동창회관은 과거의

소리가

음악이 되는

시간이다. 오라, 벗들.

시간의

미완을 채우자. 건물은 미래의

뼈대로 선다. 그 길가

나무 잎새 하나도 추억의

몸으로 댄다.

오라, 벗들. 母敎의

학연은 배움의 인연.

그것을 보듬고, 뛰어넘는

전율을 이루자.

동문칼럼

서울대총동창회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지상 19층 지하 6층의 번듯한 빌딩입니다. 30만 동문의 사랑방으로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학교 발전과 한국을 이끌어갈 후배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재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학빌딩’이란 새 동창회관의 이름도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동창회에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동문의 한 사람으로 제 자신의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사가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林光洙회장님을 비롯한 동창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는 이 동창회관이 위치한 마포구의 구청장으로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한



申英燮
(경제74-79)
서울시 마포구청장

심부에서 서쪽으로 뻗어나간 서울 한강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됐습니다.

지난해 마포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마포지역이 과거의 낙후된 지역이란 이미지를 벗고 활기차고 새로운 지역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마포구는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수십 년 동안 고착화돼 있던 동사무소의 경계를 통폐합해 24개 동을 20개 동으로 줄이고 관내 20개 동을 5개동씩 권역화해 각 동사무소의 기능을 조정하는 국내 지방행정 사상 유례가 없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해는 우리나라 행정 기관이 그 기초 단위부터 민주화, 정보화라는 시대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확고한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마포구의 이러한 시도는 대한민국의 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돼 새로운 변화에 불길을 붙였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의 수요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할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역에 보다 많은 주민이 모이고 기업체와 사회단체가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마포의 상징적 명물이 되길 ...

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동창회관은 1987년 3월 도화동 18-2번지 현재의 자리에 동지를 튼 이후 마포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중요한 자산이 됐습니다. 공덕동 로터리에서 보이는 붉은 벽돌 빌딩은 지역의 랜드마크였습니다. 대한민국 인재의 산실인 서울대 동창회관이 지역에 있다는 상징적 의미도 큰 데다 크고 작은 각종 행사가 열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

다. 2002년 월드컵 개최 이후 마포구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삼암DMC는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 미디어의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였던 난지도에는 서울의 중

하했습니다.

새로운 장학빌딩의 건립이 지역의 발전 뿐 아니라 우리사회에 도덕적, 지성적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동문 여러분의 친목을 다지고 모교인 서울대학교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는 말은 학창시절 흔히 들던 경구입니다. 그 경구는 지금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 영원히 유효해야 한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보기 위해 동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악의 미래가 궁금하면 마포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장학빌딩의 기공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서울대학교와 동창회 그리고 동문 여러분의 건승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서울大同忠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光洙
편집인 孫一根
편집주간 許瑄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 (02) 702-2233 팩스 (02) 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朴世熙, 林炯斗, 南仲九,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親,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趙在鏞, 金鎮國, 李容式, 李相起, 鄭恩玲, 蔡耕玉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광고부장 金千鶴

장학빌딩 지상 19층 지하 6층 ... 2010년 완공



기공식을 마친 후 참석한 동문들이 훌륭한 동창회관이 건립되길 기원하며 기념촬영을 했다.

4백여 명 참석 ... 웅대한 기공식 개최 林회장 “투명하게 진행·완성하는데 최선”

본회 林光洙회장 취임 후부터 추진돼온 국내는 물론 세계 최대 규모의 대학 동창회관이 될 장학빌딩 기공식이 6월 25일 오전 11시 구 마포 동창회관 부지에서 열렸다.

간삼파트너스가 설계하고 임광토건(대표이사 林裁園)이 시공하게 된 신축 동창회관은 오는 2010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30만 동문들을 대상으로 건립기금 모금액 3백억원을 달성한 장학빌딩은 건축면적 813.40㎡, 연면적 21,289.57㎡ 규모로 지상 19층, 지하 6층으로 세워진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일기가 불순한데도 불구하고 본회 회장단,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 단과대학 및 특별과정 동창회장, 장학빌딩 건립기금 출연자, 모교 보직교수 등 4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본회 許瑱사무총장의 내빈 소개에 이어 孫一根상임부회장이 장학빌딩 건립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경과보고 참조>

이어 본회 林光洙회장이 식사를 통해 “서울의 명소가 되고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1백년, 2백년이 지나도 건재할

수 있는 훌륭한 동창회관이 되도록 남은 기간동안 전 과정을 한 점의 의혹 없이 투명하게 진행해 완성하겠다”고 피력함으로써 참석자 전원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식사요지 참조>

모교 金信福부총장은 李長茂총장을 대신한 축사에서 “서울대는 동문들이 언제나 자랑스러운 모교를 내세울 수 있는 세계 초일류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성장과 발전 노력은 모교를 누구보다도 아끼는 동문들의 관심과 도움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모교의 각종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총동창회가 장학빌딩을 건립하게 되면 동창회 활동과 모교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디딤

본회 林光洙회장 기공식사 <요지>

2005년 10월의 Home Coming Day 및 가족 등산대회를 스타트로 시작한 건립기금 모금 캠페인은 많은 동문들의 좋은 호응으로 지금까지 10억원 이상 출연자가 15명에 이르고 1천5백여 명의 동문들이 열성적으로 응해주신 결과 거의 목표액을 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30만 서울대인은 모교를 사랑하고 후배를 돕고 나누는 데에 있어 어느 다른 대학 동문보다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실 상 오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건립기금 출연자 동문들께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지금의 4배, 연간 1천여 명에 대해 20억원 이상의 장학금 지급이 가능할 뿐 아니라 모교 교수님들의 연구활동비로 18억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수익을 통한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의 명소가 되어 시대를 선도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장학빌딩이 돼야 한다는 뜻 있는 동문들의 염원을 수렴해서, 장학빌딩 내에 Event Hall과 미술품 전시갤러리 등의 문화공간을 뒤 규모 면에서만 아니라 콘텐츠 면에서도 어떤 건물에도 뒤지지 않으며 자랑할 수 있는 동창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음악연주홀의 경우, 여러 가지 건축허가 상의 제약이 남아 있어 최대한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의 명소가 되고 세계적으로도 어디다 내놓아도 뒤지지 않으며 1백년, 2백년이 지나도 건재할 수 있는 훌륭한 동창회관이 되어 여러분의 가족과 그 자손이 방문하고 또 관람할 수 있도록 준공되기까지의 남은 기간동안 전 과정을 한 점의 의혹없이 투명하게 진행하고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申英燮마포구청장은 “앞으로 완공될 장학빌딩이 Globalization과 Localization이 공존하는 Glocalization의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이날 현정회 朴衡圭이사가 동창회관 신축 기공을 축하하는 시(8면 참조)를 낭송했으며, 임원진이 기공 기념 시삽을 했다. (表)

孫一根상임부회장 장학빌딩 건립추진 경과보고

오늘 역사적인 기공식을 갖게 되는 이 장학빌딩의 건립은 2000년경부터 李基俊 전 모교 총장께서 모교 캠퍼스 안에 동창회가 들어오면 보다 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협력관계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의가 있던 터라 회회장께서 총동창회장에게 취임하면서 “그렇다면, 서울대인의 위상에 걸맞는 새 동창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결심을 밝힘으로써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林光洙회장께서는 전임 鄭雲燦총장 취임과 동시에 수 차례에 걸쳐 현지 답사 끝에 모교의 현 교수회관(전 관악CC 클럽하우스) 자리가 가장 적절한 후보지라고 보고, 모교에 협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004년 2월 모교로부터 동창회관 후보지로서의 할애가 어렵다는 통보가 와서 이 계획은 무산돼버렸습니다. 고심 끝에 바로 이 자리에 구 회관을 헐고 재건축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전화위복이 된 셈이죠.

그러나 ‘재개발지구에 건축된 건물은 30년 이내에는 재건축할 수 없다’는 법적 제약 때문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때가 최대 고비였습니다. 우리나라 건축계의 원로이신 林光洙회장께서는 모든 경륜과 비방을 총동원해 그야말로 ‘율인’하셨습니다. 2004년 8월 결국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얻어내고 밀었습니다. 회회장께서 직접 뒤편 일이지만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라도 상업 또는 업무지역에 한정해서 도시 주변이 급속한 발전과 변화가 있고 건물 크기를 극대화하는 경우, 재건축할

수 있다’는 논지로 기억됩니다. 이때부터 일이 급파치로 진행돼갔습니다. 2004년 9월 이 동창회관의 이름을 아예 ‘장학빌딩’으로 명명하기로 결정하고, 2004년 10월엔 장학빌딩 조감도를 공모해 매호마다의 동창회보에 게재하여 각계각층의 동문들과 해외동문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뒤 2005년 10월 모교 홈커밍데이 겸 친목 등산대회를 시발로 林光洙회장께서 50억원을 써돈으로 내놓으면서 건축기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2006년 2월 설계를 공모, ‘간삼파트너스’가 선정돼 본격적으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 4월 마포구청에 재건축 시행인가 신청을 접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한번 아슬아슬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개발이득세)이 부가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회회장님의 정보는 너무나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기한을 하루 앞두고 건축허가를 받아냄으로써 약 25억원의 개발이득세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2006년 12월 李長茂총장님의 각별한 배려로 총동창회 사무실이 모교 교내 연구공원 본관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3월 간삼파트너스는 설계를 완성하고 4백3억원의 건축 예정가를 제출해왔습니다. 이에 관악회는 李鉉秀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金政喆 현대건설 상무, 황준규 토목엔

지니어링 부사장, 金昌德 공운대 건축학과 교수 등 전문위원과 洪性大 관악회 상임이사 외 4명의 이사로 장학빌딩 실행원가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세 차례의 회의를 갖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권장가격을 4백3억원에서 3백14억원으로 조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문제는 시공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공개입찰로 하느냐 수의계약으로 하느냐를 고민하던 중 결국, 2007년 5월 9일 동창회 제150차 상임이사회 및 재단법인 관악회 제100차 이사회에서 임광토건을 시공업체로 만장일치로 선정하기로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임광토건 회장인 林光洙회장께서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본인이 동창회장인데 그 공사를 내가 맡게되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 괜히 오해나 사게 되고...”하면서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공사는 첫째 공사비의 자금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목표액이 다 약정됐지만 모금 방법이 5년 분납으로 돼있기 때문에 실제 납부되는 자금은 기성고 지불에도 당도하기 어려울 때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형편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이번에 교육청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도 꼼꼼한 교육청에서는 건축비 전액을 예치하도록 했으며, 아직 모금이 완료되지 않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개인 입보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 林光洙회장님과 洪性大 상임이사께서 연대하여 개인 입보를 쓴 일까지 있었습니다.

둘째 이런 형편에서 공개입찰에 붙일 경우, 공사를 딸 욕심을 앞세워 응찰한 업자가 하도

급업자의 감독관리가 얼마나 어려운데, 부실공사라도 저지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회회장님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학빌딩은 처음부터 林光洙회장이 책임지고 건립하겠다고 언약하신 것인데, 만일 다른 업자가 잘 못해서 부실공사가 되거나 하자가 생기면 “내가 공사한게 아니니까 나는 모른다고 책임 회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회회장님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직접 최선을 다해 책임있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 게 속편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즐겁지 않은 의무(unpleasant duty)라고 거듭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도 14억원을 빼버리고 처음 모금때 정했던 3백억원에 맞추어주시기로 했으며, 공사중인 3년간 동창회의 자금사정을 배려해 시공계약시 20% 내지 30%의 선수금을 받게 돼 있는 것도 안 받기로 했습니다. 30%의 선수금의 경우 90억원으로 연간 4억5천만원, 3년이면 13억5천만원의 이자소득 혜택을 동창회가 보게 됩니다.

이제 2010년이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장학빌딩이 그 자태를 뽐낼 것이며, 현재 시세로 따져도 약 7백억원 정도의 재산가치가 될 것입니다. 세계 제일만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동창회관 단일 건물로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초유가 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건립기금을 출연해주신 여러 동문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로써 총동창회는 중흥의 元年을 맞이했음을 역사 앞에 밝혀둡니다.

아무래도 총결산적인 경과보고가 되다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빌딩 신축... 계획에서 착공까지

초라함에 대한 소회

학부 때 공부 안한 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아, 사회에 나와서도 학교 참 많이 다녔다. 학위 과정으로 빠르게 다닌 곳도 두 군데쯤 되고, 연구과정으로 다닌 곳도 두 군데쯤 된다. 국내·국외 가리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다녔다. 국내 대학이야 당연히 모교보다 못하지만 국외의 경우는 모교보다 조금 나은 학교도 있었다.

그런데 공통점 하나. 동창회관은 한결같이 우리보다 나왔다. 지하철 5·6호선 8번 출구를 나와 30m쯤 걷다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나타나는 적갈색 벽돌 5층 건물. 1987년에 건립된 이 건물은 십수년 동안 서울대 동문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해 온 귀중한 존재다. 하지만 이 건물을 볼 때마다 아쉬운 느낌이 들곤 했다. 벽돌 한 장 내지 않고 이런 독실, 어려운 형편에서 건립에 매진했던 동문들께는 송구스럽기 그지없는 망발이지만... 아무튼 그건 한 동문이 총동창회 일 관제로 회관을 자주 드나들면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던 소회다.

명성 걸맞는 회관 절실

‘학교 명성에 걸맞는 동창회관으로의 업그레이드는 언제나 될까?’

이런 아쉬움이 일부의 생각만은 아니었다. 총동창회 산하 여러 기관과 동문들 사이에도 동창회관의 증축 또는 관악캠퍼스 인근으로의 이전 등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나왔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2003년 9월 25일 열린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회에서 신규 동창회관 부지로 모교 교수회관을 의결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참여 및 지원 방법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동시에 동창회관 신관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한 동안의 소강 끝에 2004년 7월 1일 동창회관 건립위원회 첫 정기총회와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창회보를 통해 동문들에게 동창회관의 용도나 건축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회관건립의 과정과 절차를 상세히 보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캐치프레이즈도 정했다. ‘동문에 의한, 동문을 위한 회관을 만들자’가 그것.

회관 건립위 출범

새 동창회관 건립을 위해 이제 막 내디딘 첫 발. 할 일이 태산 같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 동창회관을 어디에 건립할 것이냐였다. 부지를 현 동창회관으로 할 건지, 아니면 관악회 이사회에서 제기되었던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부지로 할 건지?

9월 1일에 열린 회관건립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일단 현 동창회관 터에 짓는 것으로 확정하고 관계당국의 허가절차, 회관건립위원회 구성 완료, 재원조달 방법 등 회관건립을 위한 제반 논의가 이뤄졌다. 현 동창회관의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회관 규모는 저금리 정책의 지속으로 장학금 지급 액수와 수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임대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 2~3배 높기 때문에 회관은 최대 용적률을 적용 받아 짓기로 했다. 그래야만 혜택을 줄 장학금 수도 그 만큼 늘릴 수 있을 터였다.

건립 초기 활동 가시화

우선 첫 번째 절차인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를 맡아 줄 용역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주 후 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 회의에선 새 회관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장학빌딩(SNUA Scholarship Building)’으로 명명하고 동창회관 부지의 구역지정 변경업무를 담당할 용역업체로 (주)간삼파트너스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선정했다. 회관건립위원회 명칭도 장학빌딩 건립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25일, 종합건축사사무소 명성건축을 용역업체로 추가 선정해 명실공히 쌍두마차에 의한 회관건립 시동을 걸었다.

실탄 확보 대책 속의

전투 계획만 세우면 뭐하나, 실탄이 있어야지. 2005년 1월 25일, 을유년 들어 처음 가진 건립위 회의에선 건립자금 모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개진됐다.

동문 전원의 자발적인 참여, 장학기금 모금으로 장학빌딩 재원 충당, 장학기금 출연자에 한해 본인 명의의 장학회를 운영하여 기금의 은행 금리 수준 이상으로 모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비동문 참여 등을 합의해 건립자금 모금의 기본 방향을 확정했다.

또 회관 건립위원회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한편, 회관 건립에 크게 기여하는 동문을 최고기여자로 구분 우대하기로 했으며, 출연자에게는 기금 액수에 따라 인물 부조, 명세록 등을 건물 내에 배치해 동문들의 공헌도를 알리기로 했다.

“운영수익 높이고...”

3월 15일 제6차 회의에선 장학빌딩 건립·운영·모금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개진됐다. 이곳에 인천국제공항철도 신공덕 역사가 들어서면 장학빌딩이 주변의 랜드마크가 되면서 매년 40억원 가까운 운영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낙관론과 함께, 기금을 적극 모아 빌딩 건립재원으로 충당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모금 방법은 소액으로 많은 동문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과 거액을 출연할 동문을 물색하는 양면 작전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리고 사흘 뒤 열린 제37회 정기총회 겸 제7회 관악대상 시상식에서 동창회 측은 3백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건축비 중 동창회기금 1백억원과 林光洙총동창회장이 50억원, 洪性大상임이사가 10억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1백40억원은 전 동문을 대상으로 모금을 하기로 했다.

등산대회 계기 모금 붐물

그해 10월 15일 개교기념 등산대회를 시발로 장학빌딩 건립자금 모금활동에 불이 붙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10억원 이상의 거액기금을 기탁하는 동문(현재까지 15명)과 소액이라도 정성을 다해 기탁하는 동문들의 정성이 봇물처럼 이어졌다. 10억원 이상 출연한 거액 출연 동문을 비롯해 유증, 분할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문들의 기금 출연

이 이어져 최근까지 소요금액 3백억원이 일주 모아졌다.

시공사 임광토건 선정

2006년 1월 26일 열린 제10차 장학빌딩 건립회의에선 설계용역업체로 간삼파트너스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최종 선정됐고, 올해 4월 17일에 있는 제11차 장학빌딩건립위원회에서는 장학빌딩내 문화공간의 확대 배치 건의와 함께 시공사로 임광토건이 천거됐다.

지난 5월 9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내스티 홀에서 열린 150차 동창회 상임이사회 및 재단법인 관악회 100차 이사회는 장학빌딩 건립과 관련한 3백억원 규모의 수익계약을 임광토건과 체결키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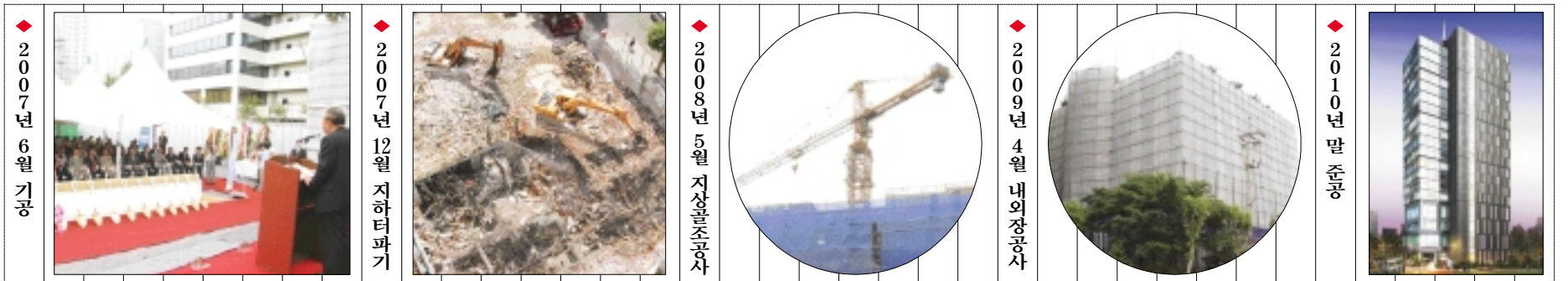
개미군단 쾌척 기대

드디어 2007년 6월 25일 오전 11시 마포구 도화동에서 역사적인 장학빌딩 기공식이 거행됐다. 3년 뒤엔 이곳에 마포의 랜드마크가 멋진 위용을 뽐내고 서있겠다.

하지만 장학빌딩 건축은 정말로 이제부터다. 비록 당초 목표액인 3백억원 모금이 거의 완료됐다고는 하나, 실제로 앞으로 수십억원이 더 소요될 것이다. 또 후배를 위한 장학사업을 위한 종자돈도 필요한 상황에서 어차피 다다익선 아닌가. 거액의 쾌척도 반갑지만, 못지않게 개미군단의 소액 기탁 손길이 더욱 고대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서울대인의 습터이자, 자부심을 반추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장학회관. 어느 대학 동창회관에도 뒤지지 않는 긍지의 표상으로 우뚝 설 장학회관의 당당한 위용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 뿌듯하다. (尹在錫 국민일보 논설위원·본보 논설위원)

정성으로 쌓은 자긍의 탑, 雄飛의 보금자리



■ 장학빌딩 건립기금 출연자의 숨은 이야기

현재까지 1천5백여 동문 참여

본회 林光洙회장이 지난 2005년 10월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에서 장학빌딩 건립계획을 선언한 후 그 해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장학빌딩 건립기금을 출연 또는 약정해 주신 동문이 1천5백여 명에 이른다.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모금액표액(3백억원)에 육박할 수 있었던 것은 출연자에게 ‘명예’가 주어지는 예우와 ‘부담이 가지 않는’ 다양한 납부방법이 동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에 장학빌딩 건립기금 출연자 가운데 거액출연자, 주식 및 유증으로 장학빌딩 건립에 정성을 보낸 이색 기부자 등을 소개한다.

林光洙회장 50억 쾌척

본회 林光洙(기계공학48-52 임광토건 회장)회장이 50억원을 출연함으로써 본격적인 기부 릴레이가 시작됐다. 林光洙회장 다음으로 가장 큰 금액을 출연한 동문은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인 申明珪(생물교육48-54 前운영여중 교사)동문. 申동문은 남편 故 朴冠鎬(화학교육47-51 前동국대 명예교수)동문과 함께 평생을 후학양성에 헌신했으며 근검절약으로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5억원을 선뜻 내줬다.

이에 총동창회 회장단에서 모금 캠페인의 불씨를 이어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본회 고문인 삼양사 金相廈(정치45-49)회장, 동아제약 姜信浩(의학46-52)회장, (주)E1 具平會(정치47-51)명예회장을 비롯해 본회 부회장인 상산학원 洪性大(수학57-63)이사장, 청아치과병원 金讚淑(치의학56-60)이사장이 남편 吳東英(조선공학54입)동문과 공동명의로 10억원을 기부했으며, 대덕전자 金貞植(통신공학48-56)회장, 도화종합기술공사 郭承勳(토목공학56-60)회장, 코리아랜드컴파니 鄭八道(AIP 1기)회장이 각각 10억원을 쾌척했다.

관악회 이사로 선임된 삼안코퍼레이션 金炯珠(토목공학46-50)회장은 대한토목학회에 72억원을 기증한 바 있으며, 장학빌딩 10억원 출연에 이어 최근 모교에 70억원 규모의 연구소를 짓기로 협약식을 맺었다. 또 올해 21대 부회장으로 선임된 삼익약기·SPECO 金鍾燮(사회사업66-70)회장은 환갑을 맞이해 1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교보생명보험 愼昌幸(의학72-78)회장은 10억원 출연자 가운데 최연소자로 기록됐다.

일반 동문 중에는 마포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원일전선판매 鄭啓泳(상학61-66)회장이 10억원을 약정한데 이어 장학빌딩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 임대수익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히 본회 부회장과 관악회 임원 전원이 1억원 및 5천만원을 출연 또는 약정한 바 있다.

해외 동문 출연 줄이어

미국 LA에서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金殷宗(경제59-63)동문이 1백만 달러를 보내와 해외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첫 동문이 됐다. 이어 재미동창회 吳興祚(치의학56-61)명예회장, 뉴욕 지부동창회 李俊行(섬유공학48-54)이사장이 각각 10만 달러를 약정했으며, 재미동창회 李典九(임학60-64)회장이 1천만원, 관악후원회 李來源(화학교육58-62)부회장이 1만2천 달러를 쾌척했다. 이외에도 태국지부동창회 李正雨(독어교육64-71)회장과 金錫鍵(농경제50-55)전임 회장이 1백만원씩 출연했으며,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 裴相璟(경제56-61)회장이 1백만원, 동문 53명이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 1만 달러를 보내왔다.

한편 일본 오사카에서 각각 의사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李雲柱(의학83-87)·吳知恩(인류83-87)

동문부부는 지난해 연말 자녀와 함께 본회 사무처를 찾아와 장학기금 5천만원을 출연하고 돌아갔다.

지부·단체·동기회도

동문 개개인이 그동안 모아온 기금을 출연하거나 여유가 생겨 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미술대학동창회(회장 金鳳九)를 비롯해 여러 동문단체에서 남다른 방법으로 장학기금을 보내주기도 했다. 미대동창회는 개교 60주년 기념 미술전시회에서 4백여 미대 동문들이 출품한 작품을 일괄 60만원에 판매해 수익금 중 3분의 1인 8천여 만원을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출연했다. 또 농생대동창회(회장 韓仁圭)는 회원명부를 발간해 얻은 수익금으로 5천만원을 약정했으며, 전북지부동창회(회장 金聖吉)에서 1천만원을 쾌척했다.

대학교 때부터 의기투합해 40년 가까이 장학회를 운영해온 그린장학회(농학과 출신 9명이 설립)가 5천만원, 축산학과 출신들로 구성된 일산장학회가 5천만원을 출연해 농대 동문들의 끈끈한 우정과 장학빌딩에 대한 애정이 두드러졌다. 특히 모교 농공학과 출신들로 구성된 서문회는 회원 31명으로부터 10만원씩 각출해 장학기금을 출연했다.

주식·상금·유증 출연

기부방법도 특색 있게 나타났다. 접착제로 유명한 오폭 金昌植(전기공학53-57)회장은 시가 1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쾌척했으며, 지난 2월 26일 개최된 관악 언론인회 정기총회에서 서울대 언론인 대상에 선정된 MBC 嚴基永(사회70-74 본보 논설위원)앵커가 즉석에서 상금 1천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했다. 국회의원을 지내고 현재 예술의 전당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魯仁煥(경제54-58)동문은 당장 기부할 여건이 되지 않지만 사후 살던 집을 매각해 그중 1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명의로 장학기금을 출연한 동문부부 가운데 현역으로 가장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부부는 3천만원을 출연한 간삼파트너스 元正洙(건축53-57)·池 淳(건축54-58)상임고문. 이 부부는 선후배 사이로, 50년간 건축가로 활동해 왔다. 또 1억원을 약정한 정립건축사무소 金正澈(건축52-56)명예회장과 金正湜(건축54-58)회장은 형제인데, 함께 설립한 건축사무소가 올해 4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모교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형제·父子·유가족 기부

한편 모금 캠페인이 시작 된지 한 달 만인 지난 2005년 11월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었던 故 吳應鉉(섬유공학67

-71 前반월나염시범단지 대표)동문의 유지를 받들어 부인 秋景玉 여사가 남편이 사업으로 모은 재산 중 1억원을 보내와 작고한 동문의 가족이 대신해서 모교지원 사업을 펼치는 첫 사례가 됐다.

최고령 출연 金載律동문

전체 출연자 중 최고령자는 1917년생인 金載律(경성법전39출)동문이며, 최연소자인 이현주 동문은 1982년생으로, 2006년 미대를 졸업했다. 1천만원 이상 출연자 중 최고령자는 1천만원을 약정한 白士益(체광학40-42·88세)동문으로 나타났으며, 1천5백여 동문 가운데 특별과정 동문이 10%를 차지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表)



관악회 제101차 이사회

장학빌딩 도급계약서 승인

자금사정 고려 선수금 없이 착공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林光洙)는 지난 6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석류실에서 제10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광토건(회장 林光洙)과 3백억원에 시공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검토, 승인기로 의결했다. 또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문 전문가로 이뤄진 건설본부(가칭)를 두기로 했다. 그밖에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보고가 이뤄졌다.

林光洙회장은 도급계약시 관악회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선수금을 받지 않고 기성금(80%)과 잔금(20%)으로 공사대금을 치르도록

배려했다. 장학빌딩 건립기금이 대부분 5년 분할약정으로 돼 있어 기성금(중도금) 지불도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林회장의 희생적인 결단으로 관악회는 상당한 이자소득의 혜택까지 보게 됐다. 일반적으로 선수금은 총 공사금액의 20% 또는 30%로 책정한다. 장학빌딩은 2010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날 모임에는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洪性大부회장 겸 상임이사, 李炯均부회장, 明泰鉉·鄭哲圭·申明珪·安聖哲·李炯均·朴明潤·金秉順·朱鍾南 이사, 朴英俊감사, 許 璿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南)

취임사서 밝힌 ‘새 동창회관 짓겠다’는 약속 지켜

특별 인터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林 光 洙회장

2002년 3월 15일에 열린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본회 제19대 회장에 林光洙(기계공학48-52) 임광토건 회장이 선출됐다. 林회장은 취임사에서 “모교의 절실한 요망과 동문들의 염원을 수용해 30만 서울대 동문의 요람이 될 동창회관 신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충분한 검토 끝에 2004년 구 마포 동창회관 자리에 ‘장학빌딩’이라는 명칭으로 동창회관을 재건축하기로 선언하고 앞장서서 50억 원을 쾌척, 건립기금 모금의 불을 당겼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 마침내 역사적인 장학빌딩 기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에 林회장으로부터 3년 뒤 완공될 장학빌딩에 대한 동문들의 궁금한 사항과 그동안의 소회,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대답 : 본보 朴聖姬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장학빌딩 기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30만 동문의 숙원인 새 동창회관을 드디어 착공하게 되는데 대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왔습니다. 제 일생의 마지막 봉사로 장학빌딩을 지어 모교와 동창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동문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자긍심을 선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역사적인 기공식을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창회 집행부를 신뢰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돕고 지원해주신 동문들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학빌딩을 건립하겠다는 결심은 언제,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요.

“공대 동창회장 시절 관악캠퍼스에 동창회 사무실과 이벤트를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하우스(공대 동창회관)를 건립했는데 건립기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무난히 건립, 완성할 수 있었고 회관 운영도 유명하고 큰 호텔에 맡겼기 때문에 품위있는 회관이 되었습니다. 또 건물을 지을 당시 예술적 측면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미국 명문대에서 방문한 교수들이 훌륭한 회관이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높이 평가받아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에 임명된 것 같습니다. 당시 많은 동문들께서 마포 동창회관이 낙후된 데다 동문들이 애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총동창회장에게 취임한 뒤 좀더 훌륭한 동창회관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죠.”

— 처음엔 관악캠퍼스 쪽에 짓고자 학교측과 많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동창회관이 모교 캠퍼스와 동떨어져 있어 모교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회장 취임 2년 전부터 李基俊 당시 모교 총장께서 먼저 제의를 해왔습니다. 캠퍼스 안에 동창회관을 지으면 동문과 재학생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 총장공관 옆 부지를

할애해주겠다는 것이었죠.

여러 차례 현장답사를 해보니 교수회관 부지가 전망도 좋고 녹지공간도 풍부하더군요. 당시 모교가 추진하려던 컨벤션센터 부지로 그 일대의 개발계획이 확정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5백억 이상 수용 가능한 컨벤션센터를 겸한 동창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2003년 모교에 부지 할애를 요청했습니다.”

첫 기부자로 50억 쾌척...

건립모금액 3백억 이끌어내

인천항만, 정부고속전철 공사 등

최우수 건설시공업체 수상

— 그런데 성사되지 못했죠.

“2년 가까이 지난 뒤 모교 측으로부터 교수회관 할애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시다.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원래의 마포 동창회관 자리에 보다 큰 규모의 회관을 건립, 임대수익금을 통한 모교 지원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곳을 심도 있게 검토해보니 도시계획상 마포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고, 영종도 공항으로 통하는 지하철역 부지로 확정된 곳이어서 캠퍼스 안에 짓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 면에서 좋은 조건이었어요. 많은 동문들께서 교수회관 자리에 지었을 경우 운영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텐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고 격려해주셔서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장학빌딩 건립계획을 추진하게 됐죠.”

— 장학빌딩 건립을 추진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재건축을 위한 첫번째 절차에서 가장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 아파트 재개발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이

미 재건축된 건물은 30년 이내에 다시 재건축할 수 없다’는 법적 제한을 두게 되면서 재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건축 관련기관을 찾아 해결책을 강구, 마침내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심지에 위치한 상업 및 업무지역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고, 건물 사용면적을 극대화했을 경우 재건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냄으로써 재건축 허가를 받게 됐죠.

특히 지난해 6월말 건축허가를 받아냄으로써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세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 25억원을 절세하게 된 것도 건립 추진의 큰 활력소가 됐습니다.”

— 짧은 기간에 건립소요액 3백억원을 거의 모금하셨는데 캠페인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단순히 기금을 출연하는 기부 형식은 서울대인의 위상에 걸맞지 않을 뿐더러 동문과 재학생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미있는 모금방법을 찾던 중 장학기금 모금이란 방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게 됐죠. 작은 돈이라도 전 동문이 동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하고, 많은 동문들이 형편껏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거액을 출연할 동문을 물색하는 방법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모금 캠페인의 시작을 알린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확정된 직후인 2005년 10월 흠커밍데이 겸 친목 등산대회 때였습니다. 많은 동문이 모인 그날 공식적으로 장학빌딩 건립안을 소개하고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 10억원 이상 출연한 분이 15명에 이르는데, 모금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거액 출연자에 대한 예우와 혜택을 다른 기부단체나 장학재단과 차별화했습니다. 1천만원 또는 5천만원 이상을 출연하면 개인

명의로 기금 또는 특지장학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출연금을 납부한 날부터 은행 금리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서 개별장학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동문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장학회를 설립하려면 비용과 인력은 물론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장학빌딩 기금 출연을 통해 개인장학회를 만들면 추가비용이 필요 없고 관리 또한 동창회에서 투명하게 한다는 사실이 많은 동문들의 동참을 결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 각종 동창회 행사에 동문들의 참여가 늘어난 것도 林회장님의 노하우가 반영됐다고 보는데요.

“처음엔 동창회 행사 참석자가 2백명도 안되고 동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흠커밍데이 행사 때도 점심만 먹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래서는 모교 사랑도 그렇고 동창회가 추진하려는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이 비상체제에 들어가 참석 여부 확인을 여러 차례 하고, 단과대학별 좌석도 마련하고, 기념품을 배포하는 등 동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등산대회 때는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자동차를 경품으로 협찬하는 등 투자(?)를 한 결과 등산대회는 5천명 이상, 기타 행사는 7~8백명 이상 참석하고 있습니다.”

— 모금은 계속 해나갈 계획이신지.

“건립모금액 3백억원은 거의 달성했습니다. 다만, 실제 기금을 출연한 동문은 전체 30만명 중 1천5백명이 채 안됩니다. 장학빌딩 맨 윗층에 명예의 전당을 멋지게 꾸며 그 벽면에 기부자 이름을 새길 예정인데, 그러기엔 숫자가 너무 적다고 봅니다. 5만명 정도면 벽면이 가득 메워지는 데다 많은 사람이 동참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모래알 같다는 서울대인의 명예도 지키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실천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최소한 5만명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계속 모금을 독려할 작정입니다.”

— 장학빌딩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요.

“장학빌딩은 서울대인의 긍지와 위상에 걸맞는 만남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모교를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지원센터 역할을 해나갈 겁니다. 또 동문과 재학생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도 되리라 봅니다. 주변 일대에 공원이 조성되고 신공항철도가 회관 바로 옆 공터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서울의 명소로도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임대수익금으로 모교 장학금 및 교수연구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수익창출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지금 추세로 볼 때 건축비의 13% 이상 임대수익이 나오면 그 중 은행금리 이상은 무조건 기금 및 특지장학금을 출연하신 동문의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 통장에 입금해 별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추정할 때 매년 38억원 정도의 순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학생 1천명에게 약 2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매년 2백50명에게 5억원을



“장학빌딩 ... 모교 지원센터이자 서울의 명소될 것”

☑ 지급하고 있는데 은행금리가 낮아 기금이 잠식되는 형편입니다. 나머지 18억원 정도는 교수 해외연수비와 연구지원 등에 쓰여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 시대에 맞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쓰일 것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

“누가 봐도 서울대 동창회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상징성을 고려해서 문화공간도 갖춘 건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 특성상 접근성이 용이한 만큼 이벤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예식홀로 이용하고 음악홀로도 사용 가능하게 하면 모교 출신을 비롯한 신진 음악인들이 애용할 수 있을 테죠. 또 1층에 미술품 전시장을 마련, 미래 동문들이 활용하는 건물로서 지역 발전에도 보탬이 되리라 봅니다.”

— 그밖에 세부사항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건립위원회에서 건축·토목·설비를 전공하고 모교와 동창회에 대한 열의를 지닌 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 세부사항을 차근차근 정하고 점검하도록 하려 합니다. 2010년 말 완공을 목표로 3년간의 건립기간이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적용할 생각입니다.”

—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셨는데 학창시절 추억담을 들려주신다면.

“1946년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광복 직후 좌우의 사상 투쟁에 이은 6·25전쟁으로 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시기였어요. 저는 다행히 부산에서 미8군 사령부 직할부대 통역관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공부를 계속,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음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건설업은 언제 시작하셨나요.

“대학 졸업 후 고향인 청주의 공업고등학교에서 2년간 교사로 봉직했고, 서울 수복 뒤엔 교통부 공정국 기계과에서 ICA 원조 자금으로 철도공작장 기계복구사업을 담당하기도 했죠. 외국 무역회사에 근무하던 중 1957년 부친이 작고하시는 바람에 부득이 선전이 경영하시던 임광토건을 맡게 됐죠. 스물아홉살 때였어요. 지금은 큰아들이 운영하니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셈이구요.”

— 어떤 스타일의 사업가이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9살 때 선전의 회사를 물려받아 50년간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회사를 맡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직접 총괄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점검을 해야 했습니다. 막상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선전과 함께 20~30년동안 일했던 분들이 제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더더욱 결재에서부터 지재구입까지 꼼꼼히 체크해야겠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런 습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 그런 점에서 임직원들이 힘들어하지는 않나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 회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현재까지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철저하게 모든 일을 실수 없이 챙긴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IMF 때도 그랬죠. 제가 신년교례회 때마다 전 임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세 때부터 50년간 부실공사·부도낸 적 없어

항만·지역 발전에도 헌신 ‘나만의 요가’로 건강 다져

‘부정하지 말고, 부실공사 하지 말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말고 맡은 일을 능력껏 하면 회사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려움은 있었으나 한번도 부실공사를 했다거나 부도를 냈다거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수많은 공사를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공사를 소개해주신다면.

“지금은 아파트 건설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원래 전공은 토목이에요. 토목건설 분야에서는 10위권을 유지하고, 특히 항만공사 부문에서는 2~4위를 달렸지요. 인천항 화물부두 건설로 10만톤급 화물 전용선이 동시에 접안 가능한 부두공사를 비롯, 방파제, 매립지 호안공사 등 항만기반 시설공사를 맡아 함으로써 오늘의 인천 항만의 기반을 구축한데 대하여 남다른 긍지를 갖지요. 또한 동해의 태산만한 성난 파도를 물리치고 천신만고 끝에 축조한 북평항만 공사가 눈에 선하군요.

또 수도권의 상수원지인 팔당호의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하여 신공법인 철강재우물통 거치공법을 개발하여 수질오염 없이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된 제일 넓은 호반 위에 2,180m의 당시 국내 최장대교량인 양수대교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높이가 53m나 되는 연륙교인 거제대교를 급속한 해류를 물리치고 시공, 완성시킨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고속전철 건설 때는 조치원에서 대전까지 연결되는 구간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끝날 때마다 정부로부터 당해년도 최우수시공 건설업체로 선정되어 건설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여러 차례 받곤 했지요.”

— 다른 단체활동도 다양하게 하신 것으로 아는데.

“1976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향만청이 개정되면서 (사)한국향만협회가 창립됐어요. 제가 초대 회장을 맡은 뒤 다섯 차례 연임하며 한국향만 발전에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고향 충북과 서울의 가교 역할 및 재경충북인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사)충북협회 회장을 21년간 맡았습니다. 일곱 번 연임한 셈이죠. 고향 발전은 물론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기울였어요. 하숙비가 없어 휴학하는 충북 출신 학생들을 위해 1989년 개포동에 충북학사를 사비로 건립했습니다.”

— 가족 소개를 해주시죠.

“2남2녀를 뒀습니다. 큰아들이 임광그룹을 맡고, 작은아들은 대성공업과 그랜드C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사위는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崔鍾燦(무역68~72)동문이고, 작은사위인 趙聖相(경제73~77)동문은 현재 미국에서 한국계 은행 이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백세인 모친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폐렴으로 건강이 악화됐었는데 얼마나 강인한 분인지 지금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 손자는 몇 명인지.

“친손자 외손자 합해서 10명입니다. 두 딸은 아들 둘씩 낳았고, 큰아들은 아들 둘 딸 하나, 작은아들은 아들 하나에 딸 둘을 뒀습니다. 아내가 38년 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 것 외엔 가족 모두 건강하게 제 길을 잘 가고 있어 저

자신 복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별히 건강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있다면, 또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는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워낙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단거리 선수였고, 중·고등학교 시절엔 유도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에 취미가 있었어요. 대학 댄 아령, 역기, 평행봉 등을 했죠. 40대 때부터는 나만의 요가법을 개발해 매일 새벽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요가를 합니다. 때로 좋은 친구들과 담소나 골프를 즐기기도 하고요.

살다보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죠. 저는 일일신신(日日新新)의 초고속 정보화시대에 대응키 위해 국내외 최신 간행물을 되도록 자주 봅니다. 역사책이나 역사소설도 많이 읽고요. 역사는 항상 되풀이되니까요. 사리 판단에 큰 도움을 받고 그 덕에 스트레스가 없어지곤 하죠.”

— 평소 신념이나 좌우명은 무엇이며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먼저 건강하십시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다 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실력을 기르고 닦으십시오. 꾸준한 공부와 연찬을 통해 지적 소양과 견식을 넓고 깊게 하세요. 실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있으나 마나 하나니까요. 아울러 사회봉사와 여행, 독서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 그리고 인간적 감성의 세계를 넓히십시오.

그리고 명분을 중시하는 올곧은 선비의 기개를 닦으십시오. 명분은 도의요 도덕이며, 원칙이자 순리입니다. 사회를 정화하고 국가의 기강을 세우려면 우선 지식인의 도덕적 원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시공사로 임광토건이 선정됐는데,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각오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회의석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당초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할 작정이었지 제가 맡을 생각은 추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건물의 건축시공 경험이 많은 洪性大부회장 겸 관악회 상임이사 등 여러 분께서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면 저희 회사가 시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해 고심 끝에 수락하게 된 것이죠.

회장 취임 시 약속한 사업이고, 50년 건설 경험에 부실공사를 하지 않고 잘 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또 설계 예가(4백3억원)가 당초 모금 목표액(3백억원)보다 많이 나오고 출연금 약정이 대부분 5년간 분할납부 방식이어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 다른 업체에게 맡겼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회장인 제가 맡는다면 손익에 구애받지 않고 동창회 사정에 맞춰 명예를 걸고 지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회장단, 상임이사회와 관악회 이사회 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회장인 만큼 모든 문제에 대한 무한책임 아래 기필코 30만 동문들께서 진정 자랑스러워하고 1백~2백년이 지나도 건재할 훌륭한 장학빌딩을 짓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사진= 본보 李五峰논설위원·정리=表智媛기자〉

장학빌딩 건립기금을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 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 50억원
△임광수(기계공학48-52)
◆ 15억원
△신명규(생물교육48-54)
◆ 10억원
△강신호(의학48-52)
△곽영필(토목공학56-60)
△김상하(정치학45-49)
△김은중(경제학59-63)
△김종섭(사회사업66-70)
△김형주(토목공학46-50)
△신창재(의학72-78)
△오동영(조선항공54입)
·김찬숙(치의학56-60)
△정계영(상학61-66)
△정팔도(AIP1기)
△홍성대(수학57-63)
◆ 3억원
△이길여(의학51-57)
◆ 1억5천만원
△SNUA웨딩플래닝센터
◆ 1억원
△강순걸(법학54-58)
△김두희(물리학52입)
△김문현(상학58-64)
△김정철(건축학52-56)
·김정식(건축학54-58)
△김창식(전기공학53-57)
△나공목(상학56-61)
△남정현(건축학57-61)
△노인환(경제학54-58)
·故한명화(가정교육60졸)
△류중희(기계공학53-57)
△명태현(기계공학46-50)
△박성훈(기계공학58-63)
△박실상(AIC9기)
△박희백(의학51-57)
△서정화(법학51-55)
△안성철(행정학58-63)
△故오응현(섬유공학67-71)
△오홍조(치의학56-61)
△우인성(기계공학58-62)
△유상부(토목공학60-64)
△이금기(약학55-59)
△이수범(행정학56-60)
△이에식(약학46-49)
△이준행(섬유공학48-54)
△이지호(의학77-83)
△이해원(행정학51-55)
△장중환(의학69-76)
△전동용(수리학52-56)
△정윤환(임학56-62)
△정충시(화학공학72-76)
△조병우(섬유공학59-64)
△지원철(축산학73-77)
△최두형(행정학51-55)
△최상홍(기계공학54-58)
△최희장(섬유공학58-64)
△홍상욱(원예학83-87)
◆ 6천만원
△엄병윤(외교학60-64)
◆ 5천만원
△공대식(기계공학56-60)

△김정희(약학57-61)
△김중현(경제학55-59)
△류재명(AMP34기)
△마국철(공업교육68-72)
△안 훈(수리학53-57)
△유중해(법학50-54)
△이승준(섬유공학56-60)
·이청원(자원공학67졸)
△이운주(의학83-87)
·오지은(인류학83-87)
△이재원(상학55-59)
△이종대(천문기상학69졸)
△이종현(경제학59-65)
△정재봉(사회사업60-64)
△지창수(상학55-59)
△하권익(의학57-63)
△하상완(치의학64-70)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농대그린장학회
△일산회 :
김진의(축산학59-65)
△한우리SJM
◆ 3천만원
△고원호(기계공학48졸)
△박홍일(영어교육60-64)
△심형윤(토목공학52-56)
△원정수(건축학53-57)
·지 순(건축학54-58)
△유석홍(무역학61-65)
·박영희(기약70졸)
◆ 2천만원
△강학순(기계공학64-69)
△김원일(건축학61-65)
·최미혜(성악66-70)
△김재백(약학52-56)
△서병륜(농공학69-73)
△윤세극(경제학45-51)
△조갑주(경제학58-63)
·정정영(불어불문62-66)
◆ 1천5백만원
△김철순(조경학76-83)
◆ 1천2백만원
△안동일(법학59-63)
△이내원(화학교육58-62)
◆ 1천1백만원
△김상수(자원공학73-77)
·김태훈(건축학02-07)
△정해남(법학72-76)
◆ 1천80만원
△서병태(의학54-60)
△조대규(약학58-62)
◆ 1천60만원
△김정범(치의학60-66)
△박준욱(약학55-59)
◆ 1천만원
△강용현(법학71-78)
△강행언(토목공학61-65)
△권동은(IIP4기)
△권혁웅(불어불문59-63)
△금진호(법학50-58)
△김 철(기계공학64-68)
△김기춘(법학58-62)
△김두만(상학59-63)
△김미령(약학74졸)
△김백준(수학62-66)
△김선양(중어중문84-88)

祝 서울대학교 同窓會館 新築起工



朴 衡 圭(정치48-57)현정회 이사

同門心合積精誠 (동문들이 모두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쌓아)
新築鳳巢萬歲城 (봉황의 보금자리로 만년성을 새로 짓고자)
今日整基置礎石 (오늘 터전을 정비하여 초석을 놓으니)
諸賢雲集祝工成 (여러분이 운집하여 공사의 성공을 축하하네)
殿竣可謂滕王閣 (전각이 준공되면 가위 등왕각이 되리니)
學友會遊溫舊情 (학우들이 어울려 교유하며 옛 정분을 나누고)
天下英才大志養 (천하의 뛰어난 인재들이 큰 뜻을 배양하여)
顯揚母校休名聲 (모교의 아름다운 명성을 밝게 드높이리라)

2007. 6. 25 獎學빌딩 起工式에서

△김연호(화학공학71-75)
△김영갑(법학74-78)
△김영석(경제학60-66)
△김원배(동물학55-60)
△김윤중(약학64-71)
△김윤태(경대원68-70)
△김일섭(경영학64-69)
△김재범(산업공학74-78)
△김종서(경제학58-63)
△김주환(토목공학57-61)
△김진규(기계공학61-66)
△문대원(경영학71-75)
△문성훈(식품공학86-92)
△박명학(영어교육61-65)
△박종국(농화학57-63)
△박준우(의학75-81)
△박진희(무역학76-80)
△박창우(경제학80-84)
△백사익(경성광전40-42)
△변상현(의학51-57)
△성백전(토목공학52-56)
△송명호(자원공학59-65)
△신방호(경제학67-71)
△신윤식(사학55-59)
△심이택(화학공학57-63)
△안경상(행정학57졸)
△양배덕(전기공학57-61)
△엄기영(사회학70-74)
△오병제(AMP21기)
△오용섭(임학60-66)
△윤영석(경제학58-64)
△윤희진(축산학63-67)
△이강수(상학51-55)
△이경호(행정학61-65)
△이계우(행정학58-63)
△이병재(경대원69졸)
△이병형(화학67-71)
△이상현(정치학64-68)
△이석운(영어영문50졸)
△이영필(항공공학66-71)
△이영필(항공공학66-71)
△이재후(법학58-62)
△이전구(임학60-64)
△이종웅(기계공학65-69)

△이진규(치의학78-84)
△이창기(약학55-59)
△이형하(법학74-78)
△장무환(경제학45-51)
△장세권(농공학70-76)
△장자준(의학70-77)
△조길웅(HPM14기)
△조정훈(자원공학75-81)
△최남해(상학52-56)
△최선집(사회교육75-79)
△최승철(기계공학66-70)
△최정길(금속공학52-56)
△최준기(조선항공57-61)
△하영기(정치학44-48)
△함정호(행정학53-57)
△허성길(경제학60-64)
△홍순자(독어교육61-65)
△황경로(AMP11기)
△전북지부동창회
◆ 5백만원
△이현구(AMP52기)
△법대37회동기회
◆ 3백만원
△강영현(농경제학69-76)
△김영수(법학60-64)
△문규철(응용화학69-73)
△이성기(행대원63-65)
△하재규(농학53-57)
◆ 2백50만원
△정경모(행대원65-67)
◆ 2백만원
△문명국(기계공학73-75)
△이동수(건축학61-66)
△이종순(법학57-61)
△최창식(의학54-60)
△한규범(AMP42기)
△허영호(전자공학71-75)
△황선태(법학66-70)
◆ 1백50만원
△윤익석(축산학49-53)
◆ 1백30만원
△정주석(법학61-65)
◆ 1백20만원

△김영도(축산학68-75)
△나명훈(의학76-83)
△이준형(GLP11기)
◆ 1백10만원
△명동근(경제학45-52)
△원우현(행정학61-65)
△유종일(신대원72-74)
△이정자(국어국문50졸)
△허신행(농경제학62-66)
◆ 1백만원
△강영복(상학51-55)
△강종표(외교학76-83)
△강홍섭(화학공학59-63)
△고 건(정치학56-60)
△고병우(경제학52-56)
△구재철(의학78-84)
△권광중(법학61-65)
△권순철(전자공학83-85)
△권이혁(의학41-47)
△김교성(전기공학51-55)
△김국일(토목공학63-68)
△김규복(법학69-73)
△김기영(ACAD49기)
△김노수(섬유공학45-52)
△김덕원(수리학50-54)
△김동찬(생물교육51-55)
△김방연(상학52-56)
△김연호(영어교육67-75)
△김영기(법학54-58)
△김영수(경제학58-62)
△김영재(법학57-62)
△김용찬(농화학57-61)
△김윤재(상학54-58)
△김익모(AIP23기)
△김인규(정치학69-73)
△김인중(법학56-60)
△김재락(법학78-82)
△김재율(경성법전39졸)
△김정일(금속공학58-64)
△김주용(전기공학58-63)
△김준말(영어교육55-59)
△김지호(화학공학55-59)
△김진익(법학55-60)

△김진우(약학54-58)
△김태현(제약학71-75)
△김태흥(화학교육71-79)
△김풍오(원자력공학68-72)
△김형기(불어교육72-76)
△김호룡(법학48-52)
△김홍종(수학74-78)
△문일환(치의학65-71)
△문창국(정치학68-72)
△박석흥(불어불문63-67)
△박성숙(의학65-71)
△박성철(법학75-79)
△박순익(치의학66-72)
△박승근(조선항공63-67)
△박영원(지리학74졸)
△박영철(AMP40기)
△박인원(의학76-83)
△박재형(의학66-72)
△박종철(물리학61-66)
△박준서(법학58-64)
△박태원(정치학46-50)
△박홍일(영어교육60-64)
△배기선(AMP25기)
△변영삼(금속공학77-81)
△변종문(공업교육72-76)
△서계숙(기약56-60)
△석준형(물리학67-71)
△송중환(외교학64-68)
△송호룡(AIC19기)
△신혜순(가정교육47-51)
△신희명(물리교육49-54)
△심장수(법학70-74)
△심한배(공업화학71-76)
△안치득(전자공학76-80)
△양해준(식품공학82-86)
△오복동(법학57-63)
△오세종(경제학61-65)
△오태환(법학53-57)
△우세홍(생물교육60-65)
△우종호(중어중문60-64)
△윤옥영(수학58-61)
△윤용혁(독어교육60-64)
△윤원진(HPM6기)
△윤홍식(물리교육56-60)
△이경렬(응용미술69-73)
△이경재(화학59-63)
△이광진(법학77-81)
△이근수(신대원69졸)
△이기봉(교육심리54-58)
△이기준(경제학55-59)
△이돈구(임학65-69)
△이두환(행대원74졸)
△이병목(의학54-60)
△이삼희(농화학66-70)
△이상욱(경영학86-90)
△이성호(AIP32기)
△이용우(공업교육64-68)
△이인혁(섬유공학54-58)
△이일훈(상학55-60)
△이재식(교육학75-79)
△이종대(독어독문64졸)
△이종복(응용미술62-66)
△이주환(역사교육53-57)
△이중환(의학51-57)
△이창건(전기공학49-54)
△이창호(기계공학55-61)
△이철주(상학59-65)
△이태형(상학59-63)
△이학숙(회화54-58)
△이호인(응용화학66-70)
△이희숙(영어교육61-65)
△임광환(농경제학55-59)
△임한조(물리학67-71)
△장권봉(응용미술56-62)
△장성원(영어교육57-61)
△장철식(섬유공학49-55)
△장혜실(성악69-73)

△전병일 (영어교육66-73)
 △전정구 (경제학51-56)
 △전종갑 (천문기상64-68)
 △전팔근 (영어교육47-52)
 △정명희 (의학65-71)
 △정민섭 (임학59-63)
 △정병일 (독어독문78줄)
 △정병해 (정치학49-53)
 △정상조 (행정학57-62)
 △정소성 (불어불문64-69)
 △정영채 (수리학56-60)
 △정완호 (생물교육58-63)
 △정우식 (항공공학80-84)
 △정정길 (행정학61-65)
 △정흥숙 (가정교육59-63)
 △정희준 (법학57-61)
 △조무제 (사대원65-67)
 △조병철 (섬유공학59-65)
 △조영찬 (중어중문74-78)
 △조완규 (생물학48-52)
 △조원환 (AMPP6기)
 △조장환 (농학53-60)
 △지철근 (전기공학45-51)
 △진영춘 (토목공학67-74)
 △진홍일 (외교학62-66)
 △최동식 (법학76-80)
 △최병재 (상학48입)
 △최종덕 (물리학52-56)
 △최종운 (의학77-83)
 △최항순 (조선공학65-70)
 △함종한 (농업교육63-70)
 △홍성완 (토목공학62-66)
 △홍순겸 (AIP5기)
 △황선용 (사회교육57-61)
 △황성재 (법학72-76)
 ◆60만원
 △여인철 (조선공학75-79)
 △이범구 (물리학69-73)
 △이정구 (의학59-65)
 △이찬구 (상학56-61)
 △이현구 (화학공학58-62)
 ◆50만원
 △강승호 (수학교육67-71)
 △강일우 (섬유공학71-75)
 △곽소진 (신대원70줄)
 △권학창 (지구과학69-76)
 △김 신 (경영학75-79)
 △김건중 (정치학66-70)
 △김봉균 (국어교육60-64)
 △김세겸 (농공학59-63)
 △김용주 (화학공학73-77)
 △김용진 (대학원80줄)
 △김재현 (경제학69-73)
 △김정우 (상학67-71)
 △김진국 (정치학78-85)
 △김혜경 (생물교육70-74)
 △류재택 (역사교육66-73)
 △박남훈 (외교학68-75)
 △박양세 (약학48-52)
 △박일재 (화학공학78-82)
 △신동우 (언어학71-75)
 △신정택 (AMP48기)
 △신한우 (사회교육50-55)
 △어 당 (섬유공학68-72)
 △오진환 (법학75-79)
 △유성삼 (기계공학59-65)
 △유종상 (중어중문66-70)
 △윤 백 (기계공학78-82)
 △윤석용 (채광학50-54)
 △이용팔 (HPM13기)
 △이은주 (간호학90-94)
 △이인재 (지질과학64-72)
 △이찬영 (상학55-59)
 △이춘배 (의학85-89)
 △이홍석 (농학52-56)
 △임상규 (금속공학68-72)
 △장영일 (치의학64-70)

△장희수 (AMP45기)
 △정상명 (행정학68-72)
 △정성호 (사법학81-85)
 △조달호 (AMP7기)
 △조성근 (행대원61줄)
 △조수호 (회화47입)
 △조영옥 (가정교육58-62)
 △조용철 (종교학64-68)
 △채경옥 (경영학86-90)
 △최동수 (경영학65-70)
 △최순철 (치의학73-79)
 △최은규 (국어교육78-82)
 △최현수 (전기공학76줄)
 △홍석주 (경영학72-76)
 ◆40만원
 △강만식 (생물학51-55)
 △연대성 (영어교육60-64)
 △이병효 (공업교육63-67)
 ◆30만원
 △강창수 (조선공학48-53)
 △고재홍 (자원공학75-82)
 △곽영철 (농공학59-65)
 △구분무 (농공학62-66)
 △구인환 (국어교육50-54)
 △김기락 (의학68-76)
 △김동완 (행대원83-88)
 △김상원 (농경제학52-56)
 △김상호 (중어중문58-62)
 △김세재 (동물학85줄)
 △김신원 (응용화학64-72)
 △김영대 (SGS12기)
 △김유원 (신대원72-74)
 △김응진 (대학원49줄)
 △김정석 (공예89-93)
 △김철중 (물리학70-74)
 △김태수 (영문학57-64)
 △김학근 (법학75-79)
 △류해주 (상학65-69)
 △문영도 (경제학50-59)
 △박강문 (국어교육63-68)
 △박경엽 (전기공학75-79)
 △박길상 (사회학72-76)
 △박동우 (농공학70-74)
 △박우규 (토목공학70-75)
 △박정수 (농공학61-69)
 △박현상 (법학76-80)
 △백운택 (영어교육63줄)
 △서경석 (행정학67-71)
 △서옥식 (동양사학69-73)
 △소병수 (사회학76-80)
 △손창수 (AMP41기)
 △신부길 (농화학63-67)
 △안소연 (공예89-93)
 △안재휴 (광산학52-56)
 △엄정식 (신대원71줄)
 △연기호 (행대원67-70)
 △유기수 (물리학53-57)
 △유기홍 (법학58-64)
 △유인광 (수리학81-85)
 △유정열 (기계공학65-69)
 △이건호 (농경제학67-72)
 △이계홍 (농공학56-62)
 △이광찬 (사회학58-62)
 △이남우 (국제경제82-86)
 △이도천 (임학55-60)
 △이만성 (상학64-68)
 △이명호 (iIP3기)
 △이상훈 (법학78-85)
 △이승복 (기계공학61-65)
 △이연자 (기악59-63)
 △이영기 (법학71-75)
 △이종완 (독어교육72줄)
 △이종휘 (경영학66-70)
 △이천진 (수학교육66줄)
 △이철근 (조선항공58-64)
 △이항철 (경제학54-58)
 △이희근 (광산학55-70)

△임수진 (ACAD56기)
 △임유철 (국제경제84-88)
 △임주환 (지질과학62-67)
 △장성종 (축산학58-64)
 △정연국 (식물학64-68)
 △정장환 (AIC11기)
 △조성수 (의학62-66)
 △조효승 (경제학84-88)
 △전주훈 (섬유공학64-68)
 △최병덕 (물리학55-61)
 △최병주 (생물교육56-60)
 △최병주 (법학78-82)
 △한동수 (의학59-65)
 △한동주 (응용미술70-74)
 △황덕연 (토목공학60-64)
 ◆25만원
 △안태준 (기계공학83-91)
 △이기준 (iIP2기)
 ◆23만원
 △진재관 (역사교육79-83)
 ◆20만원
 △강경돈 (영어교육70-77)
 △강신희 (체육교육53-57)
 △강효식 (치의학57-61)
 △고병철 (국어교육61-65)
 △고정애 (제약학87-91)
 △곽언구 (AMP34기)
 △권기술 (AMP9기)
 △권동환 (ALP2기)
 △권중화 (ACAD62기)
 △김광순 (약학59-63)
 △김남용 (축산학53-57)
 △김동암 (축산학52-56)
 △김병문 (AMFR17기)
 △김봉규 (영어교육52-56)
 △김상구 (영어교육60-64)
 △김성로 (토목공학52-56)
 △김용규 (경제학78-82)
 △김용득 (임학71-77)
 △김우전 (AMP7기)
 △김의식 (상대전문46-49)
 △김일웅 (HMP6기)
 △김창경 (역사교육61-65)
 △김창근 (법학51-55)
 △김철진 (법학50-58)
 △김충섭 (약학65줄)
 △김통호 (건축학70-74)
 △노복길 (원자핵공83-90)
 △노승권 (사법학84-88)
 △노정학 (수학교육73-77)
 △류종탁 (외교학56-61)
 △문동민 (화학공학57-61)
 △문명호 (영어영문59-64)
 △박병룡 (경제학80-84)
 △박세운 (농생물학76-82)
 △박윤해 (공법학84-88)
 △박응복 (수리학48-53)
 △박종만 (치의학69-75)
 △박찬정 (건축학73-77)
 △박철근 (법학55-59)
 △배석필 (행정학56-62)
 △변창훈 (건축학70-77)
 △서문원 (농학74-79)
 △선우종원 (법학41줄)
 △신경식 (토목공학49-55)
 △신석우 (보대원65-67)
 △신용일 (교육심리53-57)
 △신한풍 (농학59-63)
 △신현영 (화학62-70)
 △심재엽 (상학63-71)
 △안국정 (사학63-70)
 △안태호 (경제학45-53)
 △양세련 (경제학92-97)
 △양홍석 (전기공학46-47)
 △엄신희 (HPM14기)
 △오규원 (행정학65-69)
 △오근영 (심리학59-65)

△유봉환 (기계공학56-61)
 △유석기 (경제학57-61)
 △유정복 (행대원86-88)
 △유태환 (기계공학66-70)
 △유형식 (치의학59-65)
 △육강화 (사회학74-78)
 △이강소 (회화61-65)
 △이경국 (농학78-82)
 △이기대 (불어교육59-65)
 △이동수 (사회교육63-67)
 △이동일 (노어노문85-89)
 △이민철 (응용화학67-71)
 △이석우 (경제학63-67)
 △이승훈 (법학80-84)
 △이영옥 (법학52-56)
 △이영윤 (수학교육58-62)
 △이원욱 (GLP11기)
 △이윤희 (가정학64-68)
 △이재창 (농학57-63)
 △이재전 (법학52-56)
 △이준재 (농화학57-63)
 △이한동 (행정학54-58)
 △이형기 (행대원70줄)
 △이흥탁 (영어교육59-64)
 △임광순 (GLP7기)
 △임병문 (토목공학58-64)
 △장기남 (경제학61-68)
 △전남수 (농화학54-58)
 △전도진 (경대원70-72)
 △전임효 (가정관리81-85)
 △정규능 (화학공학58-64)
 △정규수 (물리학63-67)
 △정동성 (농공학57-63)
 △정용권 (조선항공58줄)
 △정윤용 (화학71입)
 △정의조 (수리학64-68)
 △조대승 (조선공학81-85)
 △조두현 (법학49-58)
 △진준현 (고고미술77-83)
 △최 일 (대학원72줄)
 △최광만 (영어교육49-59)
 △최길선 (조선공학65-69)
 △최병완 (경제학57-61)
 △최성곤 (법학78-82)
 △최수강 (건축학70-77)
 △최흥락 (경제학57-61)
 △한정길 (농생물학63-70)
 △허영섭 (지리교육74-78)
 △허운욱 (철학57-64)
 △현소환 (정치학57-61)
 △현호연 (농화학53-57)
 △홍계화 (상학66-70)
 △홍석기 (AIC9기)
 △홍종웅 (사학65-72)
 △황근연 (생물교육50-54)
 ◆15만원
 △김명훈 (교육학49-58)
 △김태영 (ACAD29기)
 △송창현 (사법학88-93)
 △신동수 (농공학55-61)
 △이승윤 (경영학93-97)
 △전동렬 (물리교육75-82)
 △조 만 (건축학56-60)
 △조혜종 (지리교육61-65)
 △최돈형 (물리교육68-72)
 △홍기갑 (행정학66-70)
 ◆12만원
 △김정구 (농화학84-88)
 △윤기숙 (기악82-86)
 △정대수 (신대원61-70)
 △정수봉 (임학60-65)
 △최근수 (법학81-85)
 △한홍진 (대학원92-94)
 ◆10만원
 △간다루미꼬 (언어교육원)
 △강기원 (법학60-64)
 △강남주 (ACAD56기)

△강명식 (법학61-65)
 △강병도 (계산통계82-86)
 △강승준 (사법학85-89)
 △강영수 (대학원61입)
 △강인현 (행정학56-62)
 △강현석 (금속공학64-68)
 △강홍주 (법학57-62)
 △강흥석 (법학58-64)
 △고병전 (기계공학75줄)
 △고상열 (경영학80-85)
 △고영림 (화학88-95)
 △고정환 (법학54-58)
 △고창현 (조선공학64-72)
 △곽노희 (기악81-85)
 △곽준희 (공예94-99)
 △구본길 (축산학63-67)
 △구본영 (경제학66-70)
 △구현수 (임학67-75)
 △권경안 (역사교육82-86)
 △권기성 (행대원77-79)
 △권대욱 (농공학6973)
 △권오득 (사회사업63-68)
 △권용관 (AMP58기)
 △권용신 (사회복지86-94)
 △권은민 (사법학82-86)
 △권태원 (전기공학64-68)
 △권태진 (기계공학71-75)
 △권희교 (농공학68-75)
 △금용일 (경제학75-79)
 △기준능 (경영학80-90)
 △김 유 (약학60-64)
 △김경림 (법학60-64)
 △김경중 (치의학72-79)
 △김경태 (HPM10기)
 △김광윤 (대학원73-78)
 △김광현 (의학66-72)
 △김광화 (HPM9기)
 △김광희 (작곡68-72)
 △김국일 (사법학86-91)
 △김금림 (약학62-66)
 △김길남 (의학75줄)
 △김길영 (ABP19기)
 △김남영 (토목공학69-73)
 △김남현 (상학53-57)
 △김대성 (공법학81-85)
 △김대중 (경제학66-70)
 △김대환 (기악89-93)
 △김덕창 (중어중문59-63)
 △김덕출 (언어학81-85)
 △김동선 (대학원59줄)
 △김동원 (산업공학78-82)
 △김동현 (경제학85-89)
 △김동환 (농공학67-74)
 △김명진 (조경학78-84)
 △김문수 (농화학54-60)
 △김문정 (전기공학90-94)
 △김범준 (종교학83-90)
 △김병두 (AMP24기)
 △김병윤 (임학55-60)
 △김병익 (정치학57-61)
 △김본원 (수리학63-67)
 △김봉민 (교육심리53-57)
 △김상갑 (건축학81-85)
 △김상두 (화학교육94-98)
 △김상철 (법학66-70)
 △김상태 (ACAD45기)
 △김선구 (경영학73-77)
 △김선중 (약학61-65)
 △김성은 (ACAD30기)
 △김성철 (공업화학73-79)
 △김성철 (물리학97-04)
 △김소혜 (교육학54-58)
 △김수한 (화학64-66)
 △김순규 (농공학62-69)
 △김순신 (영어교육51-00)
 △김순자 (회화62-66)
 △김승국 (심리학56-60)

△김승영 (ACAD43기)
 △김승재 (수학교육71-75)
 △김억관 (체육교육67-71)
 △김연근 (공법학85-89)
 △김열규 (토목공학70-74)
 △김영권 (경영학80-84)
 △김영균 (행정학52-56)
 △김영렬 (경영학79-85)
 △김영률 (기악76-80)
 △김영민 (영어영문85-89)
 △김영수 (사회교육87-91)
 △김영일 (지리학62-68)
 △김영지 (독어교육68-72)
 △김영창 (농공학59-65)
 △김영태 (응용미술59-66)
 △김영호 (잠사학65-69)
 △김완기 (상대전문46-50)
 △김우탁 (화학교육57-61)
 △김용구 (기계설계76-82)
 △김용구 (농학57-61)
 △김용근 (화학01-05)
 △김용기 (경제학56-62)
 △김용준 (치의학53-58)
 △김육환 (자연과학97-03)
 △김원일 (공업교육63-67)
 △김원주 (행정학53-57)
 △김윤기 (기계공학62-69)
 △김인기 (AIC2기)
 △김인섭 (농공학64-71)
 △김일륜 (국악79-83)
 △김재동 (조선공학70-74)
 △김재영 (불어불문82-86)
 △김재우 (농공학69-73)
 △김재창 (전자공학64-69)
 △김재호 (신문학85-91)
 △김적승 (사대원69줄)
 △김정기 (농학56-61)
 △김정기 (해양학83-87)
 △김정묵 (농생물학59-65)
 △김정수 (치의학54-58)
 △김정숙 (회화57-61)
 △김정호 (치의학80-86)
 △김종규 (화학교육62-66)
 △김종식 (ACAD60기)
 △김종탁 (산업공학74-80)
 △김종표 (사법학87-91)
 △김종환 (의학50-56)
 △김중선 (약학57-61)
 △김지선 (화학교육68-72)
 △김지호 (항공우주92-96)
 △김진수 (농경제학70-77)
 △김진수 (농공학70-75)
 △김찬우 (수리과학01-06)
 △김창윤 (수리학53-57)
 △김채종 (치의학68-74)
 △김철기 (경제학72-76)
 △김철주 (경영학75-79)
 △김철중 (농공학64-71)
 △김춘자 (고고인류64-68)
 △김태영 (치의학97-01)
 △김풍진 (농공학71-78)
 △김학수 (행정학65-69)
 △김학준 (정치학61-65)
 △김형구 (철학73-77)
 △김형기 (토목공학66-74)
 △김형선 (법학57-62)
 △김형원 (대학원83줄)
 △김호겸 (공업교육71-75)
 △김호연 (ACAD11기)
 △김흥헌 (법학67-71)
 △김화정 (수학89-94)
 △나귀수 (수학교육87-91)
 △나양명 (사법학86-94)
 △남광현 (농공학62-66)
 △남기민 (사회사업69-73)
 △남기종 (수학교육54줄)
 △남혜경 (간호학79-83)

△노석준 (토목공학76-80)
 △노정석 (경제학87-93)
 △류기락 (농업교육81-88)
 △류돈희 (AMPFRI3기)
 △류춘호 (경제학79-83)
 △문동성 (독어독문69-73)
 △문동신 (ACAD55기)
 △문성철 (상학54-58)
 △문영국 (행정학65-69)
 △문우택 (기계공학57-61)
 △문은국 (물리학98-05)
 △문철한 (상학56-60)
 △민경식 (전기공학50-55)
 △민동근 (철학46-50)
 △민병운 (농화학56입)
 △민병일 (물리학74-78)
 △민병찬 (보대원75-77)
 △민태혁 (축산학62-66)
 △박경서 (독어교육66-70)
 △박경석 (농화학52-56)
 △박경희 (응용미술75-79)
 △박광표 (자원공학47-54)
 △박만순 (무역학77-81)
 △박민철 (식물학65-72)
 △박병명 (법학74-78)
 △박병주 (의학74-80)
 △박봉규 (조선공학62-71)
 △박부찬 (행정학56-60)
 △박상필 (불어교육76-81)
 △박상홍 (농경제학55-59)
 △박성민 (화학교육70-74)
 △박성수 (농공학73-80)
 △박성희 (가정관리73-77)
 △박세나 (기악90-94)
 △박영대 (동양학87-92)
 △박영일 (경제학61-65)
 △박옥련 (치의학53-57)
 △박용섭 (농공학73-80)
 △박용진 (금속공학51-55)
 △박우병 (광산학52-56)
 △박육근 (경영학70-74)
 △박원진 (행정학51-55)
 △박유성 (불어교육90-95)
 △박윤수 (정치학47-51)
 △박의용 (국어교육91-97)
 △박인식 (교육학48-53)
 △박재규 (토목공학56-61)
 △박재범 (섬유교분84-92)
 △박정국 (의학52-56)
 △박종열 (대학원71졸)
 △박종혁 (컴퓨터공학96-01)
 △박주현 (외교학88-93)
 △박준호 (경영학96-00)
 △박중대 (상학49-57)
 △박진태 (AMPFRI2기)
 △박진환 (농경제학48-52)
 △박창서 (농경제학61-65)
 △박창진 (보대원70-72)
 △박춘배 (환대원77-79)
 △박헌렬 (화학공학67-71)
 △박형규 (ABP20기)
 △박형준 (국어교육64졸)
 △박효순 (기악64-68)
 △박훈기 (경영학81-86)
 △방기범 (기계설계84-88)
 △방덕환 (의학53-59)
 △방성호 (의학66-72)
 △배기룡 (SGS4기)
 △배용찬 (지질과학61-65)
 △배종섭 (경제학58-63)
 △배호순 (교육학67-74)
 △백선욱 (기계공학62-66)
 △백선호 (치의학73-79)
 △백승우 (작곡82-86)
 △백종섭 (사회교육77-81)
 △변모은 (국어교육90-94)
 △변유식 (농학58-64)

△사공일 (상학58-64)
 △서광석 (정치학51-55)
 △서덕모 (법학73-77)
 △서봉석 (AMPFRI1기)
 △서상수 (법학80-84)
 △서승원 (상학53-57)
 △서재영 (회화71-75)
 △서택동 (농공학73-80)
 △석관수 (지질과학84-88)
 △선종승 (경영학71-75)
 △설원태 (영어교육77-83)
 △성낙현 (응용화학71-75)
 △성명훈 (의학76-82)
 △소병철 (법학78-82)
 △손낙철 (화학교육49-53)
 △손두식 (입학57-63)
 △손수일 (국어교육48-55)
 △손신명 (무역학78-82)
 △송기형 (경영학76-80)
 △송동수 (체육교육67-71)
 △송몽채 (영어교육67-71)
 △송민호 (국민윤리01-04)
 △송범호 (수학교육81-85)
 △송세광 (APC3기)
 △송영호 (치의학57-61)
 △송완근 (섬유공학53-58)
 △송지현 (불어불문83-87)
 △송창진 (약학54-58)
 △신덕철 (기계공학68-72)
 △신동소 (입학53-57)
 △신명자 (생물교육56-60)
 △신순우 (환대원74졸)
 △신윤하 (공업교육63-68)
 △신종계 (조선공학73-77)
 △신종균 (사법학87-91)
 △신현식 (건축학50-54)
 △심종덕 (AIP15기)
 △심형보 (섬유공학54-58)
 △안동만 (건축학69-73)
 △안동만 (항공공학66-72)
 △안명숙 (응용미술67-71)
 △안미정 (제약학87-91)
 △안병준 (화학교육78졸)
 △안수현 (경영학77-81)
 △안영숙 (가정교육52-56)
 △안응선 (법학56-62)
 △안종윤 (법학51-55)
 △안주희 (사회교육73-77)
 △안진호 (지질과학91-95)
 △안치일 (농공학73-80)
 △안필준 (ACAD8기)
 △양덕배 (교육학61-66)
 △양동규 (치의학53-57)
 △양승엽 (농학52-56)
 △양태운 (iIP4기)
 △어덕준 (기계설계79-83)
 △여미숙 (사법학84-88)
 △여현태 (보대원65-67)
 △염명배 (경제학75-79)
 △오건주 (생물교육76-80)
 △오광협 (ACAD37기)
 △오봉국 (축산학48-52)
 △오선차량 (수학62-66)
 △오성진 (산업미술83-87)
 △오수국 (영어영문72-74)
 △오인식 (재료공학72-79)
 △오종출 (농공학77-84)
 △오준석 (농공학72-76)
 △오충용 (농경제학60-65)
 △오흥수 (농경제학55-60)
 △우관희 (농공학63-67)
 △우무일 (입학64-68)
 △우성만 (법학76-80)
 △우성봉 (농공학79-83)
 △우웅렬 (약학57-61)
 △원혜영 (역사교육71-96)
 △원후식 (농생물학56-62)

△유각목 (AIP5기)
 △유길준 (교육행정55-59)
 △유동립 (공업교육68-72)
 △유병서 (농경제학59-65)
 △유부열 (농업교육66-74)
 △유석형 (농공학58-64)
 △유선호 (법학72-76)
 △유시우 (농공학61-65)
 △유신혜 (산업미술83-87)
 △유영미 (의학84-88)
 △유회연 (수학교육59-63)
 △윤광선 (의학68-75)
 △윤미용 (국악65-69)
 △윤병은 (경영학72-76)
 △윤상철 (임인가공80-84)
 △윤석현 (정치학46-49)
 △윤성민 (AMP13기)
 △윤여홍 (농공학76-83)
 △윤영원 (수의학63-70)
 △윤영희 (언어학68-72)
 △윤웅섭 (수학교육61-68)
 △윤인화 (농화학55-59)
 △윤재섭 (원예학83-90)
 △이갑현 (상학61-68)
 △이강진 (의학74-80)
 △이경덕 (수학66-70)
 △이경선 (전기공학84-88)
 △이경원 (기계공학60-66)
 △이계욱 (무역학62-67)
 △이계윤 (교육행정53-57)
 △이관범 (ACAD20기)
 △이관호 (농학62-68)
 △이관희 (의학75-82)
 △이광수 (약학63-68)
 △이규본 (수의학61-65)
 △이규식 (체육교육58-62)
 △이규재 (농화학50-61)
 △이근형 (신문학78-84)
 △이기상 (의학73-79)
 △이기석 (법학76-80)
 △이기화 (무역학79-83)
 △이대원 (상학59-65)
 △이동근 (국어국문76-80)
 △이동남 (국악66-70)
 △이동욱 (심리학92-97)
 △이동호 (교육학59-63)
 △이병상 (사회학61-65)
 △이병성 (제약학74-78)
 △이병주 (영어교육54-58)
 △이병천 (입학55-59)
 △이복환 (체육교육70-77)
 △이봉호 (치의학86-90)
 △이부영 (의학52-59)
 △이삼선 (치의학86-90)
 △이상국 (토목공학80-84)
 △이상기 (서양사학81-87)
 △이상복 (AMP41기)
 △이상욱 (교육학51-56)
 △이상원 (법학80-84)
 △이상인 (농공학63-67)
 △이상인 (수의학82-86)
 △이상호 (농공학67-74)
 △이생근 (수의학78-82)
 △이석형 (기계공학70-74)
 △이선동 (보대원86-88)
 △이선영 (생명과학00-05)
 △이성균 (역사교육54-58)
 △이성운 (국사학94-01)
 △이성철 (농공학71-78)
 △이성해 (외교학61-65)
 △이세락 (AMP45기)
 △이세한 (AIC11기)
 △이수호 (AMP55기)
 △이순병 (토목공학68-72)
 △이신구 (역사교육59-63)
 △이영만 (AMP54기)
 △이영만 (HPM14기)

△이영배 (금속공학52-56)
 △이영우 (수학73-80)
 △이영태 (행대원72-74)
 △이영호 (축산학65-69)
 △이우명 (화학63-70)
 △이우영 (수의학59-63)
 △이운재 (경대원71-72)
 △이원순 (역사교육45-49)
 △이윤식 (공법학83-87)
 △이용표 (AMP36기)
 △이은신 (사법학83-87)
 △이은호 (국어교육97-00)
 △이의재 (금속공학66-70)
 △이익진 (SGS2기)
 △이장무 (기계공학63-67)
 △이장하 (금속공학87-91)
 △이재기 (농공학53-57)
 △이재명 (치의학63-69)
 △이재복 (ACAD21기)
 △이재선 (재료공학69-73)
 △이재숙 (국악59-63)
 △이재웅 (법학51-55)
 △이재원 (법학76-80)
 △이재윤 (치의학76-82)
 △이재철 (수의학52-56)
 △이재하 (전자공학75-79)
 △이재한 (약학62-66)
 △이재혁 (노어노문85-89)
 △이정근 (계산통계87-92)
 △이정순 (독어독문60-64)
 △이정진 (교육학77-81)
 △이정태 (생물교육55-60)
 △이정호 (치의학60-66)
 △이정훈 (AMP54기)
 △이정훈 (사법학89-93)
 △이종상 (회화59-63)
 △이종석 (농학65-72)
 △이종웅 (건축학63-67)
 △이종일 (국악61-65)
 △이종철 (AIC11기)
 △이주성 (대학원62-65)
 △이준규 (법학72-76)
 △이진호 (입학57졸)
 △이창규 (토목공학60-66)
 △이창호 (농경제학60-67)
 △이태근 (사회교육49-54)
 △이태종 (영어교육82졸)
 △이학성 (법학77-81)
 △이한구 (철학64-68)
 △이한규 (체육교육66-70)
 △이현주 (디자인학02-06)
 △이형주 (회화99-06)
 △이혜전 (기악79-83)
 △이호원 (법학71-75)
 △이희달 (금속공학70-77)
 △이희발 (의학59-65)
 △이희순 (상학55-61)
 △이희주 (치의학67-73)
 △임경순 (축산학54-58)
 △임광수 (법학62-66)
 △임규욱 (외교학79-83)
 △임득호 (동물학64-71)
 △임병구 (농공학60-66)
 △임병기 (농학50-54)
 △임석철 (산업공학76-80)
 △임성수 (HPM14기)
 △임성수 (치의학60-66)
 △임영목 (농공학57-63)
 △임재원 (국악76-80)
 △임현태 (원자핵공78-82)
 △장경우 (수학78-82)
 △장동혁 (자연과학99-03)
 △장만화 (경제학56-61)
 △장상용 (경영학72-79)
 △장석효 (농공학67-74)
 △장은주 (제약학90-94)
 △장재흥 (기악57-61)

△장정환 (정치학56-63)
 △장창순 (농경제학53-57)
 △장혜용 (회화69-73)
 △전광우 (경제학69-73)
 △전금자 (보대원72-74)
 △전성근 (농공학75-82)
 △전쌍식 (사회교육87-92)
 △전영철 (미학53입)
 △전창영 (건축학68-72)
 △전태수 (치의학56-60)
 △정 용 (상학61-65)
 △정강주 (체육교육69-74)
 △정건용 (치의학52-57)
 △정국성 (지질과학62-66)
 △정규영 (경제학65-70)
 △정근화 (물리교육63-70)
 △정명식 (물리학80-84)
 △정문화 (행정학59-65)
 △정병천 (행정학56-60)
 △정병한 (환대원69-74)
 △정상문 (산업미술84-89)
 △정세용 (철학72-76)
 △정소영 (상학51입)
 △정송학 (ACAD54기)
 △정수민 (섬유공학70-74)
 △정순천 (응용화학66-70)
 △정연웅 (재료공학93-00)
 △정연준 (화학90-94)
 △정연하 (정치학61-65)
 △정영관 (농생물학56-62)
 △정영근 (무기재료81-85)
 △정영삼 (산업공학70-74)
 △정육란 (응용미술62-66)
 △정우상 (국어교육53-57)
 △정운선 (농가정학76-80)
 △정원박 (대학원81졸)
 △정원용 (치의학52-58)
 △정의용 (외교학64-68)
 △정인진 (법학72-77)
 △정종운 (독어독문59-65)
 △정종해 (회화67-71)
 △정준길 (공법학86-91)
 △정진욱 (경영학90-94)
 △정찬영 (화학공학50-58)
 △정창호 (사법학85-89)
 △정춘자 (국악78-82)
 △정한택 (심리학46-49)
 △정해자 (가정교육61-65)
 △정흠래 (수의학60-64)
 △정희석 (입학60-64)
 △정희원 (불어교육94-99)
 △조광제 (ACAD61기)
 △조동주 (법학53-57)
 △조삼진 (기악58-62)
 △조성갑 (AIC3기)
 △조성문 (경영학84-91)
 △조성일 (물리학93-99)
 △조용복 (생물교육55-60)
 △조원홍 (서양사학71-73)
 △조유동 (치의학55-59)
 △조유전 (고고인류62-66)
 △조은영 (기악77-81)
 △조인형 (AMP13기)
 △조정규 (행정학68-73)
 △조주경 (수학49입)
 △조창진 (사회학70-74)
 △주영숙 (치의학55-59)
 △주영재 (공업교육72-76)
 △지근진 (농공학58-64)
 △지명철 (법학61-65)
 △지상술 (물리학87-95)
 △지주원 (의류학81-85)
 △지태연 (전기공학58-65)
 △진성철 (사법학82-86)
 △진송자 (조소64-68)
 △진정훈 (대학원93-95)
 △차광수 (경제학77-81)

△차유경 (법학73-80)
 △채병호 (약학60입)
 △채상식 (국사학70-74)
 △천기길 (농경제학57-61)
 △천기흥 (행정학62-66)
 △천만석 (화학84-88)
 △천상덕 (정치학71-75)
 △천용택 (AMP31기)
 △최강섭 (법학78-82)
 △최계운 (토목공학82-85)
 △최근선 (행정학54-58)
 △최남규 (경제학60-64)
 △최남재 (영어영문84-89)
 △최덕원 (국어교육54-58)
 △최명자 (간호학69-73)
 △최민휴 (입학55-59)
 △최법찬 (영어영문93-99)
 △최병길 (ACAD11기)
 △최봉석 (정치학69-73)
 △최상태 (행정학58-64)
 △최상훈 (화학공학71-75)
 △최석진 (지리교육63-67)
 △최성범 (경영학78-82)
 △최성종 (경대원66-67)
 △최승종 (전자공학83-87)
 △최영식 (수의학61-65)
 △최영호 (농공학72-79)
 △최원우 (독어독문65-71)
 △최종명 (AMP14기)
 △최종식 (AMPP6기)
 △최진규 (치의학87-91)
 △최진수 (의학64-70)
 △최형석 (경영학83-87)
 △최형욱 (기계공학75-82)
 △최홍영 (공업교육69-74)
 △추영일 (법학61-65)
 △탁용준 (의학81졸)
 △하상기 (물리교육74-78)
 △하순봉 (독어교육60-64)
 △하영준 (정치학55-60)
 △하정열 (ALP4기)
 △하철경 (농화학55-61)
 △한광세 (법학60-64)
 △한도형 (무역학69-73)
 △한상순 (가정교육46-50)
 △한선구 (경영학81-85)
 △한인교 (의학66-72)
 △한정빈 (공업교육63-67)
 △한환수 (농공학64-71)
 △한혜원 (불어불문83-87)
 △허 백 (약학50-57)
 △허만조 (법학64-68)
 △허현호 (수학교육71졸)
 △현충식 (산림자원99-96)
 △형남두 (사회교육52입)
 △홍종진 (농공학57-64)
 △홍현식 (치의학82-88)
 △황경구 (농공학56-61)
 △황무돈 (농공학61-66)
 △황병선 (외교학64-71)
 △황성조 (공업교육63-67)
 △황열순 (해양학86-90)
 △황은영 (공법학87-91)
 △황재부 (경영학62-66)
 △황정운 (의학54-60)
 △황종연 (AMP39기)
 △황창모 (대학원96-98)
 △황효섭 (의학58-64)
 <이상 2005년 10월 1일~2007년 6월 19일 출연해 주신 분, 해외지부 출연자는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명단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게재된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우정도 나누고 건강도 다지고 ... 골프대회 풍성

치과대학동창회

첫 전국 치대 골프대회

치과대학동창회(회장 洪禮杓)는 지난 6월 3일 경기도 여주 스카이밸리CC에서 제1회 전국치과대학 동문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모교를 비롯해 경희대, 연세대, 조선대, 전북대, 전남대, 원광대, 단국대 등 8개 치과대학 동창회에서 임원 8팀, 선수 8팀 전체 70여 명이 참가해 친목을 다졌다.

洪禮杓회장은 “타 대학 동창회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각 대학 동창회가 서로의 좋은 점을 배워 좀 더 발전해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단체전 우승은 원광대 치대동창회가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조선대 치대동창회에 돌아갔다. 임원조에 속한 金載英(71-77)동문이 73타로 메달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다음 대회는 내년 6월 같은 장소에서 경희대 치대동창회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GLP동창회

9기 동기회 단체 1위

글로벌리더십과정동창회(회장 辛東烈)는 지난 6월 4일 경기도 광주 강남300CC에서 1백5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결과(신페리오방식 적



GLP동창회 제4회 친선골프대회



ROTC동문회 제4회 故 李鍾範회장배 골프대회



치대동창회 첫 전국치대 골프대회

용)는 다음과 같다.

▲단체우승 9기 동기회 ▲단체 준우승 12기 동기회 ▲개인우승 강창석(14기)동문 ▲개인준우승 김 설(8기)동문 ▲메달리스트 류종혁(9기)동문

ROTC동문회

洪性寬동문 우승

ROTC동문회(회장 梁在鉉)는 지난 5월 30일 경기도 기흥 한성CC에서 5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故 李鍾範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결과(신페리오방식 적용)는 다음과 같다.

▲우승 洪性寬(5기·사회사업63

-67)동문 ▲준우승 金善振(19기·체육교육77-81)동문 ▲3위 金仁相(9기·건축67-71)동문 ▲메달리스트 趙顯益(16기·체육교육74-

AIP동창회

골프로 결속력 다져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姜錫大)는 최근 골프대회와 등산대회를 열고 동문간 친목을 다졌다.

지난 5월 28일 뉴서울CC에서 열린 골프대회는 1백5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裴基榮·李康元·李明勳동문이 팀을 이룬 31기 동기회가 단체우승을 차지했으며 朴仁圭(5기)동문이 69타로 개인전 1위에

78)동문 ▲통계스트 崔海元(12기·원예70-74)동문 ▲니어리스트 金鍾烈(10기·응용수학68-72)동문



耳順테니스회

全兢烈·金明煥동문 우승

60세 이상 테니스 동호인으로 구성된 耳順테니스회(회장 金正澈)는 지난 6월 6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코트에서 제52회 춘계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팔순조 : 우승 全兢烈(토목공

학45-48)·金明煥(의 학 46-51) 동문, 2위 金善吉(경제45-52)·李文炯(약학47-50)동문, 3위 馬景錫(화 학 공 학 45-

48)·趙勝鉉(의학 45-49)동문 ▲이순 A조 : 우승 姜信玉(법학56-61)·李慶佑(체육교육61-65)동문, 2위 金燦熙(상학62-66)·申東澈(화학교육59-63)동문, 3위 高相睦(상학53-57)·申京鐵(행정64졸)동문 ▲이순 B조 : 우승 李昌健(전기공학49-54)·朴商浩(건축52-56)동문, 2위 洪明熹(법학55-59)·曹圭勇(경제53-57)동문, 3위 朴仁鎬(체육교육53-57)·金行元(치의학52-56)동문

ACPMP동창회

부부 초청 세미나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李鍾洙)는 지난 6월 12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1차 포럼 및 부부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문부부 1백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金興洙(경제78-82)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건설산업의 상생 협력방안’ 포럼에 주제발표자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정현(1기)선임연구위원,

패널로 동부건설 金萬基(건축75-79)상무, 신한건설 박주상 본부장 등이 나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는 여एस더클리닉 여एस더(대학원96-98)원장이 초청 강사로 나와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법’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ACPMP동창회는 2004년 1기 61명을 시작으로 올해 4기 72명 총 2백여 명의 건설사 CEO들이 모여 매월 둘째 수요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조찬세미나를 갖고 있으며 기수별로 골프, 등산, 해외연수를 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올랐다.

6월 2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열린 등산대회에 동문 가족 1백여 명이 모여 관악산 연주암을 등반했다. 산행 후 캠퍼스내 솔밭가든에서 음식을 나누고 레크리에이션 등을 즐기며 모교에서 짧은 하루를 마감했다.

동창회는 하반기에 학술세미나(9월), 등산대회(10월), 골프대회(10월), 송년회(12월) 등의 친목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음악대학동창회

국악과 동문들 군샷!

음악대학동창회(회장 徐桂淑)는 지난 6월 7일 인천그랜드CC에서 제2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 본회 許瑋사무총장, 徐桂淑음대동창회장 등 20여 명의 동문이 참가했다. 이날 경기에서 卞淙燾(국악81-85)동문을 비롯해 국악과 동문들이 전 종목을 휩쓸었다.

이날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승 卞淙燾동문 74타 ▲메달리스트 이종길(국악85-90)동문 79타 ▲준우승 李洙龍(국악91-95)동문 74.6타 ▲3위 蔡兆秉(국악82-86)동문 76.8타 ▲통계스트 金性卿(국악77-81)동문 2백m ▲니어리스트 金日輪(국악79-83)동문 4m80cm

상대63동기회

吳秀吉회장 선출

상과대학 63학번 동기회(회장 金成鶴)는 지난 6월 1일 서울 한 국언론재단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으로 서양무역 吳秀吉(상학63-67)대표를 선출했다.

신임 吳회장은 “임기동안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吳회장과 함께 許重松(경영63-67)·韓國鍾(상학63-67)·宋 昶(경제63-67)·禹英命(상학63-70)·李世根(상학63-70)동문이 부회장으로 수고하기로 했으며 감사에 李正達(상학63-67)동문을 선임했다.

동승클럽

高哲煥교수 강연

문리대 65학번 모임인 동승클럽(회장 宋常熙)은 지난 6월 8일 서울 삼성동 현죽빌딩 6층에서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동승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高哲煥(식물65-69)교수가 초청돼 ‘환경과 지속 가능발전’이란 제목으로 열강을 펼쳤다.

다음 포럼은 오는 9월 14일 같은 장소에서 있을 예정이다.

(南)

알림

제3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

9월 10일(월) 렉스필드CC

모교의 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제3회 총동창회장배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각 단과대학(원) 및 특별과정·직능지부 동창회와 지방·해외 지부 동창회가 모두 함께 하는 행사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07년 9월 10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 렉스필드컨트리클럽 (전화 : 031-880-0300)
- ◇참가대상 : 단과대학(원)·특별과정 동창회, 직능지부·지방지부·해외지부 동창회별로 2개팀 출전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가능(접수는 해당 동창회에 문의)
- ◇진 행 : 샷간방식
- ◇시상내역 : 단체전 및 개인전(여성부 별도) 이글, 행운, 깜짝상 등 시상
- 출입원상은 최고급 승용차 예정

※ 대회 일정이나 운영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서울대학교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행대원동창회 金基炳회장 (롯데관광 회장)

최근 행정대학원동창회는 신임 회장으로 롯데관광 金基炳(67쵸)회장을 선출했다. 金회장은 외국어대총학생회장으로 4·19 전국대학생대표 질서수습위원회의장을 맡는 등 청년시절부터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73년 상공부 국장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당시 불모지에 가까웠던 여행업에 뛰어들어 국내 최고의 관광업체를 일궈내기도 했다.

－ 동창회 활성화 방안은.

“회원은 4천5백여 명 되는데 정·관계와 학계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을 할애해 모임 참석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 정제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우선 회원명부를 재정비해 동창회가 다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새로운 행정이론에 관한 세미나 등을 활성화해서 동문들의 관심을 끌어낼 생각입니다. 또 회별·직장별 조직 개편, 홈페이지 제작, 골프·등산 등 친목 모임 정례화도 추진해 동창화다운 모양새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롯데관광을 소개해 주신다면.

“국내·해외여행, 전세버스 등을 담당하는 종합여행사로 직원이 5백10명 정도 되며 지난해 수수료 순익 기준으로 4백66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매출 규모면에서는 업계 3위지만 직관업계 1위이며 영업이익률도 1위입니다. 최근 농협교류센터와 합작해 농협롯데관광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농협 지점을 통한 영업

원을 설립했습니다. 특별히 여성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미림여고·미림여자정보과학고를 세우게 됐죠. 미림여고에서 84년에 서울대 자연계 전체수석, 85년에 서울대 전체수석을 배출하기도 했어요. 배드민턴으로 세계를 제패한 나경민 선수도 미림 출신이고요. 특히 미림여고 출신으로 구성된 1백30인조 KWWO (Korea Woman Wind Orchestra)밴드를 키워 매년 정기연주

중합니다.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국가의 공복으로서 책임을 다해 나가길 바랍니다.”

함경남도 원산 출신인 金회장은 경기도, 외국어대 영어과 졸업후 모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내무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상공부 기획관리관으로 마감하고 여행업계에 투신해 현재 롯데관광 외에 롯데관광개발, 동화면세점, 동화투자개발 등 여러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최근 철도청과 합작으로 KTX관광레저 설립, 포천시와 대단지 관광레저타운 개발 협약, 농협과 합작으로 자본금 1백억원의 농협롯데관광을 설립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개성철도관광사업에도 큰 관심을 쏟고 있다. 부인 辛貞姬씨와 사이에 두 아들이 있다. 이북5도 함경남도 행정자문위원장, 서울시 배드민턴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南〉

“조직 재정비·세미나로 활성화”

망 확충으로 매출 규모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으리라 봅니다. 지난해 업계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해 일반에게 공개하기도 했구요.”

－ 교육사업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기업해서 번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 미림학

회를 비롯해 농촌, 병원, 군부대 위문공연 등을 하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동문 가운데 공무원이 참 많습니다. 공무원의 자질과 역량에 따라 국가의 행로가 좌우되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의 책임이 막

광주·전남지부동창회

단대·직장별 간사제 운영키로

광주·전남지부동창회(회장 宋彦鍾)는 지난 6월 13일 전남 담양 리조트 송강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장 인사, 감사·결산보고에 이어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宋彦鍾 회장을 재선출했으며, 다음 임원 회의에서 임원 및 이사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宋彦鍾회장은 “동문 개개인이 열의를 가지고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1년에 두 번 이상 가족을 동반한 행사를 개최하고, 각 단대와 직장별 간사를 뒤서 자연스르게 모이고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한 뒤 “우선 동문들의 근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명부를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였다.

이날 李承基(건축70-76)상임 부회장, 鄭斗采(상학58-62)·金鍾南(물리63-67)감사, 李一順(가정교육66쵸)여성동창회장, 崔協(고고인류65-69)문리대동창회장, 崔德植(성악74-81)총무 등을 비롯해 金后坤(약학50-54)·張貞淑(미학51-56)·鄭秉燮(법학56-61)·南喆祐(화학교육57-61)·金友子(체육교육59-63)·梁圭鎬(치의학64-70)·黃元杰(기계공학66-70)동문 등이 참석해 지부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광주대 음악학부 교수인 崔德植총무가 광주대 제자들과 함께 멋진 공연을 펼쳤다.

동창회는 오는 가을에 가족 동반 야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충남지부

沈大平의원 축하연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5월 23일 대전시내 연향 한정식에서 沈大平(경제60-66)동문의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을 개최했다.

지난 4월 25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沈동문은 “정치적 입장에서 책임감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늘 고심한다”며 “특히 대전·충남의 자존심을 위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희망과 봉사로 앞장 설 것”이라고

동문 작품 지상 전시회

徐在瑛作



‘만추’ 수채화 39×51cm 2006.

〈작가약력〉

▲71~75년 모교 회화와 졸업
▲95~04년 부산 문화예술대, 진주산업대, 동아대, 인제대 강사
▲02년 인사동거리축제, 을숙도 문화회관 개관기념전
▲06년 한국아외수채화회 서울·부산 교류전,

부산·고양미협교류전, 부산미술제, 모교 미대 60년 기념전
▲07년 제1회 개인전(서울, 부산), 부산 여류전
▲한국미협, 부산미협, 부산여류전, 부산 카톨릭미술인회, 아외수채화회 회원.

영동지부동창회

지역 봉사활동 펴기로

영동지부동창회(공동회장 洪東善·安任洙)는 지난 6월 21일 강원도 평창군 소재 허브나라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 여름 해수욕장에서 휴지줍기와 질서유지 자원봉사, 노인복지시설과 자매결연, 단오제 기간 통역 자원봉사 활동 등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姜賢珪고문, 洪東善·安任洙공동회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전했다.

또 “무너진 뒤에서야 일어나려는 충효의 고장이 되어서는 안 되니,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손잡아주고 일깨워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이기적인 정치활동에 자성해야 하며, 서울대 동문들이 국가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자문해보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AMPFRI동창회

회비증대 방안 논의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尹煥植)는 지난 6월 16일 서울 종로 한 음식점에서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尹煥植회장, 張玄星·소재범·韓基永자문위원 등 30여 명의 임원이 참석해 하계 해외연수, 외식산업 박람회 출품, 한마음 체육대회, 회비납부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개진했다.

하계 해외연수는 7월14~18일 중국 서안과 신계립 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박람회 출품건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동문 회비 독려를 위해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에게는 소식지 발송 중단, 홈페이지 회원자격 박탈, 동아리 활동 중지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마음 체육대회는 10월 9일 경기도 분당 탄전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南〉

그를 보는 순간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란 구절이 떠올랐다. 나지막한 음성이며, 선한 눈빛하며 그는 ‘맘씨 좋은’ 의사 선생님 바로 그 모습이었다. 6월 17일 오후, 중국 길림성 연길시 북산가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만난 金秉賢(치의학81-87)동문은 꼭 5년 전 이곳에서 잠시 스치듯 만났을 때나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인데, 제가 무슨 화제의 동문이 되나요?”

그는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마뜩치 않은 표정이 역력했다. 거듭 설득하자 “총장님(金鎮慶)도 말씀하시고 하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만, 정말 뭐 내세울 게 없는데...” 하면서 입을 뗀다.

몸에 밴 봉사 ... 7년째 중국서 무료 진료 “남 위해 일할 때 진정으로 행복해요”

생님’으로 부르죠. 솔직히 호칭에 대해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金실장의 겸손함은 여기서 또 배어 나온다.

모교 치대에서 보철과 레지던트를 마친 그는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일과가 끝나서도 치과를 찾아오는 학생들 치료에 여념

만 하기로 했다고 한다.

“내년 봄 학기에 맞춰 2월말에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돌아오면 또 몇 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려고 합니다.”

치과 의사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리를 박차고 물 설고 땅 설은 중국 연길의 조그만 대학으로 옮긴 金동문의 부인(안진숙

있다.

생화학·컴퓨터전자통신·건설·재료기계 자동차 등 공학부와 상경대·동양어대·서양어대·간호대 등의 전공을 갖춘 이 대학은 설립 15년만에 중국 전체 1천2백개 안팎의 4년제 대학 가운데 1백위권에 랭크돼 있다고 한다. 이 학교 본관 앞 태극기를 비롯해 성조기, 유니온 잭 등 10여 개 국가의 국기가 팔각이는 계양대가 특히 눈길을 끈다. 교수들의 출신국가 국기인 것이다. 연변과기대에는 金실장 외에 朱秀吉(건축73-77)부총장과 재료기계자동차 공학부 교수이자 평양과학기술대 설립 부총장을 겸하고 있는 鄭鎭浩(금속공학77-81)교수 등 동문 10여 명이 재직중이다.

한편, 모교 치과대학에서 후학을 지도하다 교수직을 사퇴하고 장애인과 어민 진료 등에 나선 동문들도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7월 중순 서울 종로구 신교동에 문을 여는 장애인 전용 치과병원인 ‘푸르메나눔 치과’ 초대 원장인 張旻秀(치의학82-88) 동문은 강릉대를 거쳐 200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교 치대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퇴직 후 영등포에서 ‘서울수치과’를 개원중이다.

그는 “힘들더라도 보람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장애인 치료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또 1989년부터 6년간 모교 치대 보철과 교수로 재직했던 鄭憲永(치의학71-77)동문은 현재 속초에서 주로 어민들을 상대로 진료활동을 펴고 있다.

서울 무교동에서 ‘김용호치과’를 열고 있는 金龍浩(치의학83-89)동문 역시 모교 교수직(1995~2000년)을 후진에게 물려주고 개원한 케이스다.

〈본보 李相起논설위원·한겨레신문 스포츠부문 편집장〉

화제의 동문

연변과학기술대학 金秉賢치과진료실장

경기도 분당에서 ‘기쁨치과’를 열던 金동문이 연변과기대에 몸을 실은 것은 2000년 7월 20일. “아들 생일이 이곳에 도착한 다음 날인 7월 21일이어서 어수선하게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 정확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매일 20~30명 중국인들 치료

그는 이후 매일 20~30명 학생·교직원들의 앓는 이를 돌보고 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치아가 안 좋아요. 중국사람들(그가 주로 치료해주는 조선족들도 국적은 엄연히 중국인이다)은 과거 웬만한 감기만 들어도 테트라사이클린이란 항생제를 많이 복용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가 검게 변하고 쉬이 상했던 거죠.”

그만큼 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이곳에 많다는 얘기다. 그의 연변과학기술대 공식 직책은 ‘치과 진료실 실장’.

“하지만 저를 실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라고 부르고 교수님들은 저를 ‘원장’이나 ‘선



이 없다. 한국을 떠나 7년째 이국 땅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탓에 치과대학 동문들하고는 거의 교분을 맺지 못해 그의 근황을 아는 이는 별로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되레 그가 낮은 곳에서 외골수로 봉사 활동 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게 사실.

金실장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한다. 또 “연변과기대 치과에서 7년 동안 무료로 치과 진료를 하면 봉사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만 7년째를 맞을 올 가을학기 동안 한국에서 안식학을 가질 예정이다. 대부분 안식년을 1년간 하지만 이곳에 치과 의사가 없어서 한 학기 동안

씨) 역시 연길에서 조선족들을 위해 한국어 가르치고 있다. 고3·중3 두 아이와 함께 한국엔 2년에 한번 겨울 방학을 이용해 다녀간다고.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무리가 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10여 동문 연변과기대 교수로

한편 1993년 설립된 연변과기대에는 7월 현재 교직원 1백80명이 흑룡강, 요녕, 길림 등 동북 3성의 조선족(학생 전체의 85%)과 한족 그리고 한국에서 온 유학생 등 1천7백명의 전체 학생들 교육을 맡고

공학 세계 7위·자연과학 13위

상하이 자오통대서 모교 학문분야 평가

모교 소식

모교(총장 李長茂)는 최근 상하이자오통대가 실시한 학문분야별 세계대학평가 'Pub'(SCI-E급 저

널에 게재된 논문수) 평가에서 공학이 세계 7위, 자연과학이 13위에 올랐다.

특히 자연과학분야에서 SCI-E급 저널에 게재된 논문수는 30위인 하버드대보다 앞섰다. 이는 모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의 연

구성과 수준이 세계 10위권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학문 분야별 세계 1백대 대학 평가에서 모교는 공학분야 51~75위, 자연과학분야 76~1백10위 그룹에 선정됐다. 공학분야 평가에서 1백위권에 오른 우리나라 대학은 모교를 비롯해 카이스트와 포항공대로 두 대학은 77~1백6위 그룹에 속했다.

상하이자오통대의 이번 평가는 자연과학과 공학, 농업생명과학,

임상의학 및 약학, 사회과학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이뤄졌으며, 모교는 2개 분야에서 1백대 대학에 선정됐다. 상하이자오통대는 매년 8월경 세계 5백대 대학을 발표해 오고 있으며, 학문 분야별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학분야의 평가기준은 HiCi(논문 피인용지수), Pub(SCI-E급 저널에 게재된 논문), Top(SCI 저널에 게재된 논문 중 질적 평가를 통해 상위 20% 논문), Fund

(연구비 수주액) 등 4가지이며 평가비중은 각각 25%이다. Fund(연구비 수주액)에 대한 아시아권 자료가 없어 이번 모교 평가기준에서는 제외됐다.

자연과학분야는 HiCi, Pub, Top(이상 평가비중 25%), Awards(교수 중 해당 분야에서 노벨상 또는 필즈상 수상, 15%) Alumni(동문 중 해당 분야에서 노벨상 또는 필즈상 수상, 10%) 등 5가지 기준을 통해 평가됐다.



공대 교육연구재단

기금출연자 명관 제막

공과대학 교육연구재단(이사장 金道然)은 지난 6월 18일 모교 관악캠퍼스 39동 2층 로비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명관 제막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모교 李長茂총장, 공과대학 金道然학장을 비롯해 기금 출연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金道然학장은 기념사에서 “교육연구재단은 공과대학 연구기반조성과 장학금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20주년을 맞이해 그 소중한 뜻을 기리기 위해 기금 모금에 참여한 분들의 성함을 기록·보존키로 했다”고 말했다.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공대 동문들은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오는 한편 후배들이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핵심 인재로 활약하도록 모교를 돕고 뒷받침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모교가 글로벌시대의 고급정보화 사회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공대인들이 앞장서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86년 설립된 교육연구재단은 그동안 많은 동문들의 지원에 힘입어 현재 1백50여 억원의 기본 재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과대학 학생교육 및 교수연구 활동 지원, 공학분야연구소 지원, 장학금 지급 및 포상, 공학교육과 관련된 워크숍 및 도서발간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자랑스런 서울대인’을 찾습니다

7월 31일까지 모교 기획실로 추천

서울대인의 영예이자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수상자는 매년 개교기념일(10월 15일)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기념식에서 발표합니다. 올

해로 17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 동문들께서 적격자를 추천해주시길 바랍니다.

7월 31일까지 모교 기획실(전화: 02)880-5082, 팩스: 02)889-748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배님, 아세요?

다양한 상징물 ①⑥

농생대 상징조형물

관악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 건물(200동) 앞에 설치된 상징조형물.

농생대는 지난 2003년 수원 캠퍼스에서 관악으로 전체 이전했으며, 지난해 1백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조형물은 한국에이버리 李洪(농화학70-76)대표가 제작비 일체를 지원해, 미술대학



崔仁壽(조소66-70)학장이 창작했다.

마천석 좌대 위에 스텐레스 스틸 재질로 만든 조형물은 5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단순하면서도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했다.

공과대학

국내 첫 단대 학장 공모

공과대학(학장 金道然)이 국내 최초로 단과대학 학장을 공개 초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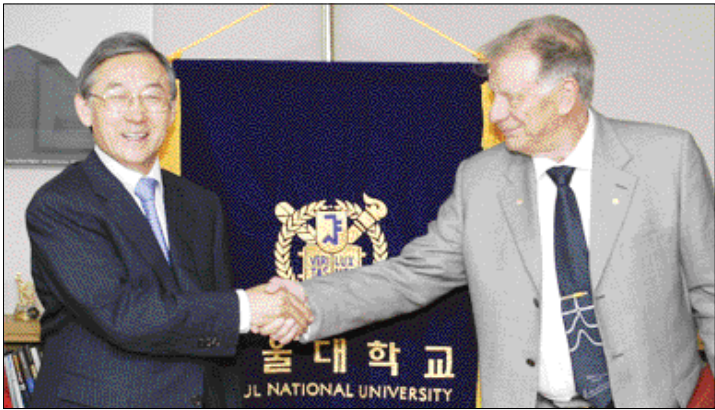
‘공대 발전에 대한 비전과 이를 구현할 역량을 지녔으며,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았고, 서울대학교 교수로서의 임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으로 초빙합니다.’

지난 6월 15일 모교 공과대학이 이런 내용의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실었다.

오는 9월 새 학장을 선출하면서 그동안 교수 전체 투표로 학장을 뽑아왔던 공대가 처음으로 학장을 공개모집해서 뽑기로 했다. 학장 임기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선거방식도 직접선거제에서 간접선거제로 바꾼다.

金道然학장은 “직선제를 통한 학장 선출이 지난 20여 년간 대학의 민주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 제도는 폐쇄성과 비효율성 때문에 대학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20~30년 후 우리 국가의 경쟁력은 현재의 대학 교육이 결정짓는 만큼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모교 공대가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燮)

노벨상 수상자 모교서 특강 세계적 석학과도 학술교류 논의



특강에 앞서 모교 李長茂총장이 알페로프 박사(右)와 접견했다.

최근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 석학들이 대거 모교를 방문했다.

2000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조레스 알페로프(Zhores I. Alferov) 박사는 지난 6월 13일 모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설계연구관 도연홀에서 특강을 했다. 알페로프 박사는 ‘이종접합구조 - 정보기술과 에너지 변환기술을 위한 새로운 물질’을 주제로 강연했다.

러시아 한림원 부원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외국인 회원인 알페로프 박사는 ‘이종접합구조’라는 새로운 반도체 구조를 이용한 고속전자학과 광전자학을 발전시킨 공로로 지난 2000년 노벨물리학상을 공동수상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제48회 한림석학강연’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모교 반도체공동연구소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지난 6월 15일에는 1996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해롤드 크로토(Harold W. Kroto) 플로리다주립대 교수, 1994년 필즈상 수상자 에핌 켈마노프(Efim I. Zelmanov) 한국고등과학원(KIAS) 석학교수, 외국 과학재단 이사장 등 9명의 해외 석학들이 대거 모

교를 방문했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해외석학단과 접견 및 오찬을 갖고 학술교류, 연구협력 의견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외석학 방문단은 크로토 교수, 켈마노프 석학교수를 비롯해 아든 베먼트(Arden L. Bement, Jr.) 미국국립과학재단(NSF) 총재,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 보선퀴비스트(Bo Sundqvist) 원장, 중국자연과학기금위원회 첸 이유(Chen Yiyu) 이사장, 스위스국립과학재단 디에터 임보든(Dieter Imboden) 이사장, 독일연구협회 레인하르트 그룬발드(Reinhard Grunwald) 사무총장, 뉴질랜드 과학기술연구재단(FRST) 패트리샤 해리스(Patricia Harris) 부이사장 등이다.

해외석학단은 한국과학재단 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했다.

자랑스러운 공대동문상 시상



鄭桃錫사장



金信培사장



趙榮柱사장

공과대학(학장 金道然)은 지난 6월 21일 2007년 자랑스러운 공대동문상을 시상했다.

엑스모빌기술연구소 具滋榮(금속공학67-72)자문위원, STX조선 鄭桃錫(조선공학71-75)사장, SK텔레콤 金信培(산업공학74-78)사장, KTF 趙榮柱(토목공학74-78)사장 등 4명의 동문을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했다.

具박사는 지난 1993년부터 ExxonMobil기술연구소에 근무하면서 현존하는 가장 강한 천연가스 수송용 배관인 X120의 개발에 성공하는 등 최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창출에 이바지했다. 鄭사장은 끊임없는 조선생산기법을 연구하고 적용해 STX조선의 성장을 주도함과 동시에 국내 조선산업이 세계적인 위상을 갖추는데 기여했다. 金사장은 세계 최초의 CDMA 상용화를 이끌며 우리나라 이동통신산업을 발전시키고 한국을 세계의 IT강국으로 도약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趙사장은 현재 3.5세대 이동통신으로 불리는 KTF의 WCDMA사업을 이끌어 왔으며, 차세대(4세대) 이동통신인 후대인 터넷 WiBro 등의 성공적인 개발 및 사업 추진에 공헌해왔다. (變)

재학생의 소리

“선배님, 삶의 아름다운 지침이 돼주세요”



崔芝榮

(법학부06입)

2학년 재학생

하루는 아버지께서 은사님에게 선물로 받은 것이라며 액자에 잘 넣어진 사진 한 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선물을 주신 분은 아버지의 고등학교 은사님입니다. 장년퇴임을 하신 후에 은사님은 틈틈이 고향 곳곳의 풍경과 정취를 사진으로 담아내고 계셨는데,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선물을 받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붉은 분홍빛이 도는 연꽃 봉우리를 잡은 것이었는데, 사진 속 꽃은 활짝 핀 것도 아니고 잎을 다물고 있는 것도 아닌, 이제 곧 피어나기 위해 잎 하나를 펴는 바로 그 순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가 지나서였을까요. 저는 좀 답답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도 같은 마음입니다. 언제나 잎 하나만을 펼쳐, 활짝 피지도 혹은 다른 봉우리를 띄우지도 않고 그저 수줍게 잎 하나만을 내리고 가만히 서 있는 그 꽃에서는 더 이상 예전에 느꼈던 그 신선함은 없었습니다. 자꾸만 조바심이 나는데 언제나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니 이제 사진은 볼수록 답답하고 언제 꽃이 필 지 가마득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사진을 잠시 내리기로 했습니다. 거실 벽은 비게 되었죠.

흔히 삶을 한 떨기 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꽃을 빗대어 삶을 ‘花無十日紅 人不百日好’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저

는 선부르게 꽃을 피우는 것을 경계함을 넘어, 언젠가 질 꽃에 대한 조금의 허무함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을 붉은 꽃이 없더라도, 띄우다 만 꽃은 예전에 지냈던 신선함의 아름다움조차 쇠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무겁게 할 수 있음을 사진을 통해 배웠습니다.

올해는 저에게 스물 두 번째 계절입니다. 사진 속의 그 꽃처럼, 저를 비롯한 서울대 재학생도 이제 갓 봉우리를 띄우고 잎 하나를 내렸을지 모릅니다. 더 생기발랄한 꽃을 띄우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겸허히 그 꽃잎을 떨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학교가 학생에게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과 앞서 꽃을 띄운 동문선배께서 삶의 아름다운 지침이 될 것을 바랍니다.

콩트 릴레이

1977년 관악사의 늦은 가을

崔秀哲

(불문77-81)

한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1977년 관악캠퍼스의 남학생 기숙사인 관악사의 한 방에서, 수형은 늦은 시각에 시를 쓰고 있었다. 기숙사 개방행사인 오픈 하우스 축제가 닷새 후로 다가왔다. 주최측에서는 행사 홍보 팸플릿을 만들면서 거기에 인사말과 일정 외에 축시도 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축시는 기숙사생들의 작품들 중에서 선발하기로 하였다.

대학 신입생인 수형이 축시 현상공모 공고본을 본 것은 이미 열흘 전이었다. 애초에 그에게는 응모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고등학교 시절에 시를 쓴다고 했지만, 자신의 작품들이 난삽하고 지리멸렬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탓이

“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방안에서는 술의 늪지 위에

썩고 깨진 젊음의 두레박들이

이리저리 널려 있었다.

”

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시에는 원작이라는 것이 없었고, 그렇다고 즉흥적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고등학교 때 국어선생은 우연히 그의 시를 읽고서, 연못 속에 두레박을 던져 넣었다가 끌어올려서 거기에 담긴 것을 되는 대로 나열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는데,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적절한 지적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축시 당선자에게 주어지는 부상이 술이라는 데 있었다. 당선자와 당선자의 파트너에게는 생맥주를 무한정으로 마시게 해준다는 것이었다. 아직 생맥주 기술이 그리 발전하지 않은 시절이어서, 학생들에게 맥주는 귀한 술이었다. 관악사에는 수형의 고등학교 동기가 여럿 들어 있었는데, 하나같이 호주가들이었으며, 그들이 그 공고를 보고서 자기들 못지않게 술을 좋아하는 수형을 부추긴 것이다.

단순히 부추긴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에 그 축시 공모는 수형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 자연히 부상으로 제공되는 맥주도 수형의 것, 아니 그들의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술자리에서 그들이 그렇듯의 기투하여 묘하게 추켜세우는 통에, 그는 우쭐해진 마음과 술기운에 힘입어 그만 자

기도 모르게 승낙해버린 것이었다. 역사상 술자리에서 술감에 한 약속으로 인해 고통 받은 사람들, 심지어 인생을 망치기까지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다음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당연히 그로서는 후회막급이었다. 심지어 그로서는 어리석기 짝이 없게도 친구들의 짓궂은 음모에 걸려들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철석같이 약속한 마당에 시 쓰기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하여 지금 그는 담배를 피워 물고서 원고지를 한 칸 한 칸 메워나가고 있는 것이었다. 우선 그는 ‘젊은이는 촌꾼이랴오’라고 썼다. 이미 며칠 전에 떠올린 구절이었다. 그 뒤로 영 진척이 되지 않아 매일 밤과 새벽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웬지 예감이 달랐다. ‘왼쪽으로 돌 때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감성을 불 밝히고,’ 얼마 후 그는 다음 줄을 썼다. ‘오른쪽으로 돌 때는 땅 위의 대기를 호흡하며 지성을 번득이고,’ 그 뒤의 시구들도 줄줄 이어졌다. 이윽고 그는 세 대의 담배를 피운 후에 마지막 줄을 썼다. ‘모두 함께 우정의 두레박을 드리웁시다.’ 결국 다 소위 유치한 진부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팸플릿용 시에는 오히려 적절하지 않겠는가. 내친 김에 그는 제목도 그렇게 달았다. ‘모두 함께 우정의 두레박을 드리웁시다.’

다음날 일어나서 그 시를 다시 읽어보니, 전날 적잖이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그런대로 잘 써여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등학교 때 국어선생은 그에게 연못 속에 두레박을 던져 넣듯이 시를 써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야말로 그 혼란스런 연못 속에 젊음의 두레박을 드리웠다가 뭔가 제대로 된 것을 하나 건져 올렸다는 느낌이 들기까지 했다.

수형은 곧바로 그 시를 행사 주최측에 전달했고, 다음 날 저녁 그는 당선 통지를 받았다. 그로서는 백일장을 포함한 문예공모전에서 처음으로 당선의 영광을 얻는 순간이었다. 그 기쁨이 의외로 컸던 탓에, 이제 비로소 앞날이 제대로 풀리기 시작하리라는 과장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암으로 타계한 그 국어선생에게도 뒤늦게나마 빛을 갚았다는 느낌도 뒤따랐다.

다음 날, 그는 고등학교 동기들과 인근 대학의 여학생들과 미팅을 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파트너가 정해졌을 때, 그는 짐짓 별 거 아니라는 듯이 동기들에게 축시 당선 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친구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열띤 목소리로 축하를 했으며, 아울러 같은 방식으로 자기들끼리 자축을 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 있던 그의 파트너가

그에게 물었다. “그런데 그 축시의 제목이 뭘지 물어봐도 되나요?” 수형은 무심결에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요. ‘모두 함께 우정의 두레박을 드리웁시다’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그 여대생의 얼굴에서 묘한 표정이 잠깐 어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저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분명 미심쩍어 하고 의심하는 듯한 냉소적인 기색이 스쳐지나간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정신이 번쩍 든 그는 멧쩍어졌고 흥이 꺼졌다. 따지고 보면, 정치적으로 암울하기 짝이 없는 이 시대에 그가 하고 있는 짓이란 어린아이 장난에 불과했다. 그녀도 수형의 반응을 보고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뭔가 만회하고 보상하려는 노력을 보였지만, 그로서는 고개를 드는 일도 힘들어졌다.

다음날 오후, 그러니까 오픈하우스 하루 전날, 마침내 군인들이 장갑차를 타고 교정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눈앞이 캄캄하고 머릿속이 아팠했다. 전날 막연하게나마 가졌던 불길하고 거북한 예감이 현실로 나타난 듯한 느낌이었



일러스트레이션 吳洙亨(서양화02-06) 동문

다. 그렇게 무단으로 진입한 군인들은 교직원을 제외한 학생 모두를 학교 밖으로 내보낸 뒤 교문과 학교 진입로를 봉쇄했다. 곧 학교를 무기한으로 폐쇄하는 강제 휴교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았다. 기숙사 역시 군인들의 감시하에 들어갔다. 그날 밤, 기숙사의 각 방으로 사감 교수의 경직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숙사도 폐쇄될 것이므로 기숙사생들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음 날 정오까지 방을 비우고 귀향하라는 것이었다. 기숙사생들은 분노에 치를 떨었으나, 방에 고립되어 갇힌 채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었다.

다음날 오전에, 상급학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산발적인 항의가 이루어졌으나, 군인들의 완강한 침묵과 직선적인 행동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했다. 마침내 정오가 되었을 때, 군인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방문들을 벌컥벌컥 열어젖히며, 당장 떠나지 않으면 체포하여 연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수형을 포함하여 기숙사생들 전원은 가방과 책 보따리와 이불 짐 등등을 들고서 하나씩 기숙사 건물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수형이 주위를 돌아보니, 상급생들은 전혀

눈에 띄지 않고, 하나같이 신입생들뿐이었다. 그들은 짐을 둘러멘 채 둘 셋씩 짝을 이룬 채 열을 지어 경사진 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마치 건기가 닳쳐 어미 펠리컨들이 떠나고, 새끼 펠리컨들이 자기들끼리만 남겨진 채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 행렬을 이루어 걷기 시작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광경이었다.

그러나 그들 중 적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미 행선지가 정해져 있었다. 그들은 언덕 아래에 있는 단골 술집으로 몰려갔다. 두 명의 과부가 운영하는 그 술집의 모든 방은 이른 시간에 학생들로 뺑뺑하게 채워졌고, 곧 이어 막걸리와 소주와 부침개 따위가 부산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들고 간 보따리들은 창고로 쓰이는 방에 부려져 있었다.

수형은 구석진 방에 앉아 있었다. 동석한 이들 중에는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이들도 있었지만, 그저 얼굴만 알고 있던 이들도 적지 않았다. 당연히 그들은 빠른 속도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들의 심정은 하나같이 불안정하기 짝이 없었다. 울화와 분노에 차 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에서 비롯된 그 불안정함은 술기운과 위태롭게 결합하여 수시로 자체 분란과 자기 파괴의 기미를 드러냈다. 결국 그들 사이에서 그 상황에서는 그리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서 말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진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처음에 한쪽 구석에서 시작된 부질없는 시시비비가 모두에게 번져나간 것인데, 엉뚱하게도 ‘안절부절하다’가 맞느냐 ‘안절부절 못하다’가 맞느냐 하는, 이른바 표준말 논쟁이 벌어진 것이었다. 한 마디로 그들은 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렇듯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는 곧바로 온갖 방면으로 번져나가면서 그들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을 불러일으켰다. 외 부로부터 난데없이 날아든 충격이 그들 내부에 균열을 일으키고 불협화음을 유발한 것이었다. 이제 그들은 거칠고 미친 촌꾼들이었다. 왼쪽으로 돌 때는 절친한 친구들을 머리로 들이받고, 오른쪽으로 돌 때는 바닥에 넘어진, 자신이 넘어뜨린 친구들의 사지에 걸려 자기 자신도 넘어지고 있었다. 이른바 우정의 두레박들이 서로 부딪치며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개중에는 꺾어져버리는 경우도 생겨났다.

그러다가 그들은 자정 무렵에 하나둘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이라 늦은 시간에는 술집에서 자는 것이 허락되었다. 수형은 새벽녘에 눈을 떴다. 컵가에 통금 해제 사이렌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몸이 반쯤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와 막걸리와 맥주가 쏟아져 바닥을 채우고 있었다. 그야말로 방안은 술의 연못이라 할 수 있었다. 다행히 주인 아주머니들의 배려로 방바닥은 따뜻했다. 그 방에서 십여 명의 동료들이 그렇듯 미지근한 술에 몸을 흥건히 젖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것이었다.

수형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미닫이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서기 전에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방안에서는 술의 늪지 위에 썩고 깨진 젊음의 두레박들이 이리저리 널려 있었다. 순간, 수형은 코와 눈에 강한 통증을 느꼈다. 마치 유독 그쪽으로 피가 격하게 몰려든 듯한 느낌이었다.

동문기자 취재수첩

정치인 브리핑룸

2004년 12월, 국가보안법, 신문법, 사학법, 과거사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으로 여야가 정면 충돌할 때였다. 당시 여당의 강경론을 주도하던 국회의원 세 명이 국회 브리핑룸을 문을 차듯이 밀고 들어왔다. 그러더니 훗날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한 의원은 전체 기자를 향해 “이 기사를 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라며 비아냥 거렸다. 4대 입법을 직권상정하지 않고 있던 당시 金元基국회의장에 대해 “국회의장을 뽑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이 보수신문에 의해 왜곡 보도됐다는 것이다.

그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가 긴급히 브리핑룸으로 들어왔다. 이미 뒤에 포진돼 있던 보좌관들과 해당 기자와의 말싸움이 시작됐다. 브리핑룸은 몇몇 기자들과 보좌관들 간의 몸싸움으로 번졌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렸다.

신입기자들은 선배들로부터 “경찰서에 문을 차고 들어갔다”느니, “취재처 사무실을 뒤집어엎었다느니”하는 이미 전설의 고향이 되어버린 무용담을 가끔 들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이 기자들의 공간인 브리핑룸에 들어와 난동을 부렸다는 말은 무척이나 생소할 것이다.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된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뉴스거리였다.

그날 신문사와 인터넷매체는 해당 의원

의 해명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브리핑을 할 당시에도 그랬고, 보도된 기사를 봐도, 대체 어떤 발언이 어떻게 왜곡되었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아무리 다시 읽어봐도 첫 보도와 해명보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최근 盧武鉉 정권과 언론계는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만큼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에 관계없이 언론의 권위를 위해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 듯했다. 그러나 6월 17일 전 국민 앞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盧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보여준, 언론단체장들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민들이 언론에 바라는 건 무엇일까? 아니 대체 국민들은 왜 그토록 언론을 불신하는 것일까? 정파와 이해에 관계없이 상식적인 판단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진영에 따라 일 더하기 일이 삼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盧武鉉 정권 들어 국민들은 언론이 상황에 따라 일 더하기 일이 삼이라고 보도한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오보도 아닌 것을 오보라 주장하며 행패를 부린 정치인이 믿었던 것도 바로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아니었을까?

대통령과의 대화에 참석한 언론단체장들은 기자실 통폐합 관련 언론계가 발표한 성명서와 보도내용을 그대로 직언하지 못



邊熙宰

(미학94-01)

인터넷신문 빅뉴스 대표

했다. 오히려 “우리는 언론통제란 성명서는 한번밖에 내지 않았습시다”라느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라며 대통령이 듣기 좋은 말로만 일관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패널들이 잘못 나왔네요” 등등의 언론 비하 발언을 마음껏 되풀이했다. 국민들 눈에 언론인들은 “뒤에서만 욕하고 권력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존재”로 비춰지거나 않았을까?

기자실 통폐합 문제는 인터넷 등 다매체 시대에 제한된 공간의 브리핑룸을 어떻게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선과 악의 종교적 명제가 아니라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합리적

사안이란 것이다. 그러나 논쟁이 지속되면서 이상하게도 “기자들은 기자실에서 죽치고 고스톱이나 치며 답합하는 존재”라는 점만 자꾸 부각되고 있다.

언론은 盧武鉉 정권 들어 진보와 보수 각각의 정파를 대변하며 이진투구로 싸웠다. 명분은 언론개혁이었다. 그러나 盧武鉉 정권이 끝나갈 지금 시점 언론의 권위는 추락되었고, 국민적 신뢰도는 더 떨어졌으며, 언론시장도 크게 위축되었다. 영광이 있다면 상처뿐인 영광이다. 그러다 급기야 대통령으로부터 “다음 정권에서 기자실이 부활 못하도록 대못질을 해버리겠다”는 말까지 들었다.

2004년 12월, 한국 언론계가 정상적이었다면, 각자의 편집방향이 다르더라도, 최소한 일 더하기 일은 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로부터 그 신뢰를 인정받았더라면, 과연 정치인들이 국회 브리핑룸에서 그런 난동을 부릴 수 있었을까? 설사 그렇더라도, 언론 스스로의 이익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려 만든 브리핑룸을 지키기 위해 모든 언론인들이 그 정치인들을 내쫓을 수 있지 않았을까?

당시 멍하니 상황을 지켜만 봤던 필자는 구조조정으로 길거리로 내쫓기는 동료 언론인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노트북을 내던지고, 해당 정치인의 먹살을 잡아 끌어냈어야 했던 게 아닌가, 후회할 때가 많다.

동문기자 취재수첩

‘능장대응’ 경찰의 태도

법과 정의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말은 진부하다. 그래서 내가 꺼내어 놓으려는 사연도 진부한 이야기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그 진부한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일 때 시민들은 절망스러운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 3월 14일 새벽 1시쯤. 한 40대 남성과 20대 초반의 여성 둘이 서울 동작경찰서로 달려 들어왔다. 이들은 동작경찰서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사라진 20살 1학년 여대생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남성은 사라진 여성의 아버지였고, 20대 여성들은 각각 사라진 여대생의 언니와 친구였다.

경찰서를 찾은 가족과 친구는 “함께 있던 친구가 사라진 뒤 곧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낯선 남자가 전화를 받아 지금 데려다주는 길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며 “성폭행 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들은 안내도 없이 스스로 담당부서를 찾아 헤매야 했고 막상 담당부서를 찾았을 때도 10여 분만에야 당직경찰을 만날 수 있었다. 당시 당직경찰은 사무실에서 불을 꺼놓은 채 문을 걸어 잠그고 잠을 청하고 있었다. 부스스한 머리에 잠이 덜 깬 표정, 사무실 바깥으로 완전히 나오지도 않은 채 무슨 일인가고 물었다.

마침 취재차 동작서에 나가있던 필자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 절망감을 느꼈다. 그리고 기사를 썼다. 왜냐면 경찰이 신고자들을 이리저리 떠넘기며 능장대응을 하는 사이에 여대생은 4명의 생면부지의 남성에게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CBS의 보도가 나간 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의자들을 붙잡았고 나름의 조사를 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되고 말았다. 소명(혐의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다 난 뒤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사무실에서 잠을 자던 경찰이 들고 일어섰다.

“거봐라.., 성폭행이 아니라지 않느냐”며,

사건을 수사해서 영장을 신청한 경찰이 영장이 기각되자 쌍수를 들고 반기는 형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열심히 수사를 해 영장을 신청한 경찰이라면 영장기각에 아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준간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경찰이 빨리 출동해 현장을 포착만 했더라도 영장이 기각됐을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들은 영장기각을 자신들의 능장대응에 대한 면죄부로 활용하고 있다. “그 날 일어난 사건이 현행법상 성폭행이 아니니까 능장대응이 성폭행을 불러



沈勳

(국문99-06)

CBS 사회부 기자

왔다고 말할 수 없게 됐다. 그러므로 경찰의 대응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다.

능장대응 경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는 방식은 지능법들의 논리를 연상시킨다. 담당검사는 “솔직히 피의자들이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실정법상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담당검사 말이 바로 법과 정의의 괴리를 말하고 있는데, 경찰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데 무슨 상관인가’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지능법들의 행동을 ‘합법과 불법 사이의 줄타기’라고 표현한다. 지능

법들은 사회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안 되는 짓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능장대응 경찰의 논리가 지능법들의 논리와 한 치도 다르지 않다. 술 취한 여성을 데려다가 네 명이 ‘합법적으로’ 성폭행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고 능장대응도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은 셈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한술 더 떠 애꿎은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피해자가 잘못이라는 둥 원래 그런 애가 아니냐는 둥 하는 말을 해 2차 성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것도 물론 현행법으로 처벌은 안되겠지만)

피해자는 지금도 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고, 너무 억울한 피해자 가족들은 없는 형편에도 수백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구해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성폭력 관련법에 절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능장대응’ 경찰의 태도였을 것이다. 피의자들의 처벌이 어렵더라도 피해 여성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자신들의 잘못을 사죄하는 그런 경찰의 모습을 기대한 내가 어리석었을까.

처음으로 돌아가야겠다. ‘지능’ 경찰들이 법과 현실의 괴리를 이용하고 있는 사이 20살 대학교 신입생과 그 가족들은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이처럼 너무 진부해 가슴 아픈 이야기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동 정

수 상

▲池明觀(종교48-54 前한림대 한림과학원 일본학연구소장)=지난 6월 19일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旭日重光章 수훈.

▲孔貞澤(경제53-57 서울시 교육감)=지난 6월 13일 유엔 산하 비정부기구인 세계평화교육자국제 연합 (IAE-WP)이 수여하는 '아카데미평화상' 수상.



▲朴貞浩(간호58-63 모교 간호학과 명예교수)=지난 6월 16일 대한간호협회 창립 84주년 기념 행사에서 제4회 간호대상 수상.



▲金炯孝(철학58-62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지난 6월 8일 曙宇 崔載熙선생의 학덕을 기려 제정한 제19회 曙宇철학



상 수상.

▲宋 敏(국문59-63 前국어학회장·국민대 명예교수)=지난 6월 9일 국어학자 一石 李熙昇선생을 기려 제정한 제5회 一



石국어학상 수상.

▲李慧淳(국문60-64 이화여대 교

수)=지난 5월 31일 이화여대 창립 1백21주년 기념식에서 제3회 이화학술상 수상.

▲權 博(약학61-65 한국세링사장)=지난 6월 12일 아시아·유럽 미래학회가 수여하는 글로벌CEO 대상(국제경영부문) 수상.



▲李清俊(독문66졸 순천대 석좌교수·소설가)=지난 6월 20일 한국·진흥·경기저축은행이 제정한 제1회 제비꽃 서민 소설상

수상.

▲鄭海洵(법학63-68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지난 7월 3일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한·프랑스 항공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 최고 훈장 '레지옹 도뇌르' 수훈.

▲李龜澤(금속공학64-69 포스코 회장)=지난 6월 13일 서울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제16회 다산경영상(전문경영인부



문) 수상.

▲楊秉彝(농경제64-68 모교 환대원 교수)=지난 6월 5일 제12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자연문화유산 보전에 기여한 공로로 황



조 근정훈장 수훈.

▲李正典(경제64-71 모교 환대원 교수)=지난 6월 5일 제12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李一恒(전기공학66-70 인하대 교수)=지난 6월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 매달 수여하는 '이달의 과학 기술자상' 수상.



▲李熙範(전자공학67-71 한국무역협회 회장)=지난 6월 12일 아시아·유럽 미래학회가 수여하는 글로벌CEO대상(국제협력부문)



수상.

▲羅壽善(약학67-71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지난 7월 10일 한국 여성과학자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최고의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장' 수훈.



▲黃健豪(경영70-74 한국증권업 협회장)=지난 6월 26일 서울 여의도전경련회관에서 월간조선이 수여하는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가치경영부문) 수상.



▲高聖三(경대원72-74 중앙대 교수)=지난 5월 15일 제26회 스승의 날 기념 모범교원 초청 오찬에서 홍조 근정훈장 수훈.



▲李洪錦(미생물73-77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장)=지난 6월 20일 한국 여성과학기술포럼 사무국에서 제6회 한국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진흥상

수상.

▲韓渭洙(법학76-80 서울고법 부장판사)=지난 6월 28일 서울 프

레스센터에서 '통신비밀의 공개와 보도에 관련한 민·형사적 제문제'라는 논문으로 韓宇언론법상(논문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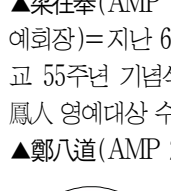
▲張明宇(치의학83-89 하버드대 교수)=지난 6월 7일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최우수 교수상 수상. 또 학생들이 존경하는 교수에게 주는 감사장 수상.



▲柳海鎮(경제88-95 MBC 프로듀서)=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제28회 반프 월드 TV페스티벌에서 다큐멘터리 '너는 내 운명'으로 심사위원특별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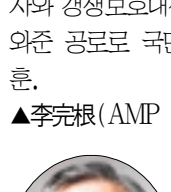
▲白盛禧(식품영양90-94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지난 5월 28일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수여하는 제3회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 수상.



▲梁在奉(AMP 1기 대신증권 명예회장)=지난 6월 8일 전남대 개교 55주년 기념식에서 제11회 龍鳳人 영예대상 수상.



▲鄭八道(AMP 26기·AIP 1기 코리아랜드캄파니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6월 2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밝은 사회를 위



한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서 재소자와 갇혀있는 대상자의 자립을 도와준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李完根(AMP 27기 신성ENG 회장)=지난 6월 13일 서울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제16회 다산경영상(창업경영인부



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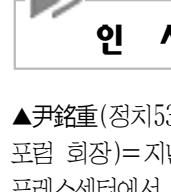
▲黃寅秀(AMP 29기 성일건설 회장)=지난 6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건설 60주년 기념 건설의 날' 행사에서 금탑 산업훈장 수훈.



▲金相賢(ACAD 27기 前국회의원)=지난 5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한중인 남버린 앙흐바야르 몽골대통령으로부터 몽골

친선최고훈장 수훈.

▲金勝濟(ALP 4기 스타코 대표)=지난 6월 2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서 22년간 소년소녀 가장 3백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온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尹銘重(정치53-57 한국언론인포럼 회장)=지난 6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판매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

▲金鍾信(기계공학64-72 前서부발전 사장·한국프로젝트경영협 회장)=최근 한국수력원자력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鄭東俊(행대원65-67 동원산업 부사장 겸 지식경영고문·한국인사관리자협회장)=지난 5월 10일 한국노동교육원 초빙교수



에 위촉.

▲李熙載(무역69-77 前안동지부 동창회 총무·안동대 교수)=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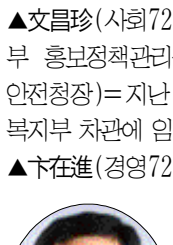
인 사

6월 12일 안동대 제5대 총장에 취임.

▲徐南洙(철학71-75 前모교 사무국장·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지난 6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 임명.



▲申相完(치의학71-77 고려대 임상치의학대학원장)=지난 5월 18일 일본 고베에서 아시아치과보철학회(AAP) 회장에 선출.



▲文昌珍(사회72-79 前보건복지부 홍보정책관리실장·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난 6월 19일 보건복지부 차관에 임명.



▲卞在進(경영72-76 前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보건복지부 차관)=지난 6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제45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



▲曹炳喆(사회73-77 세계일보 논설위원·본보 논설위원)=지난 6월 4일 세계일보 수석논설위원에 선임.



▲李忠範(법학78-82 정해복지 이사장·변호사)=지난 5월 21일 서울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사)대한삼보연맹 신임 총

재에 취임.

▲李相在(AMP 44기 세진SMC 회장)=지난 6월 1일 禧薰 DESIGN GROUP 부회장에 선임.

▲徐仙鎬(SGS 4기 한국사회복지



개발원장·주한 인도대사관 명예총영사)=최근 미국 아메리칸주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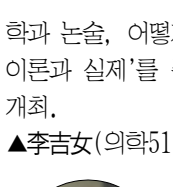
▲權大友(ACPM 3기 前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엑셀런스 코리아 사장)=지난 6월 13일 아시아경제신문 회장에 선임.



▲金世勳(법학50-58 평안섬유공업 회장)=지난 6월 5일 서울 위커흔호텔에서 열린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 & 이미지 혁신'이란 중장기 경영비전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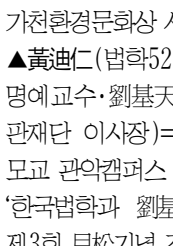


▲丘仁煥(국어교육50-54 모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문학과 문학교육연구소장)=지난 6월 22일 한국방송통신대에서 '문



학과 논술, 어떻게 할 것인가 -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李吉女(의학51-57 경원대 총장·가천문화재단 이사장·본회 부회장)=지난 6월 4일 모교 연건캠퍼스 합춘회관에서 제1회



가천환경문화상 시상식 개최.

▲黃迪仁(법학52-57 모교 법학부 명예교수·劉基天교수기념사업회 관재단 이사장)=지난 6월 18일 모교 관악캠퍼스 법대 서암홀에서 '한국법학과 劉基天'이란 주제로 제3회 月松기념 강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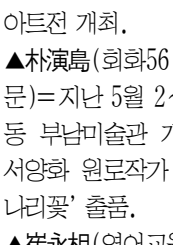
▲鄭鎭斗(철학53-57 바울학회 상임 회장)=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바울학회 미북가주 지회 설립.



▲金鎭炫(사회54-58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지난 6월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일본친구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한길사) 출판기념회 개최.



▲金載姪(회화56-60 한국미협·한국여류화가회 회원)=지난 6월 2~3일 미8군 초청을 받아 서울 용산 예배당에서 크리스천



아트전 개최.

▲朴演島(회화56-60 한국미협 고문)=지난 5월 2~31일 서울 경운동 부남미술관 개관 1주년 기념 서양화 원로작가 초대전에 '노랑 나리꽃' 작품.

▲崔永相(영어교육56-61 서울스카우트 회장)=지난 5월 14일 미국 코칭대학에서 '전문코치 자격증' 취득.



▲李洪基(지리교육62-66 성현언론기금 이사장)=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서울 신사동 예일화랑에서 소장 미술작품전 '한국 누드화 컬렉션' 개최.



▲張惠容(회화69-73 청주대 교수)=지난 6월 20~26일 서울 관훈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제1회 에이스아트 그랑프리 수상기념전

개최.

▲康一宇(섬유공학71-75 강&강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장)=지난 6월 4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정 PCT(특허협력조약) 세미나 개최.



▲許 埴(회화81-85 전남대 교수)=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 시간동 갤러리 베아르페에서 '유목동물+인간'을 주제로 제12회 개인전 개최.

▲徐慧妍(성악82-86 모교 성악과 교수·소프라노)=지난 6월 28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베르디의 오페라 아리아만을 모아 독창회 개최.

▲서수민(기악97-01 코리아나 챔



버뮤직소사이어티 단원)=지난 7월 10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슈타미츠, 슈만 등의 작품으로 비올라 독주회 개최.

▲羅鍾億(AMP48기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한국골프클럽니스트 협회장)=지난 6월 1일 경기도 서원밸리CC에서 시낭송과 골프詩를 서예작품으로 만들어 증정하는 소묘시초 행사 개최.



▲崔烈坤(ACAD 6기 前서울시 교육감·성균관 고문)=지난 5월 17일 경북 성주군 법산마을에서 오암서원(竹軒)선생 삼부자를 모신 서원) 준공·복원향사 개최.

I 명복을 빕니다 I

본회 田溶星 前부회장



국내 최초의 의사출신 판사이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최고령 변호사였던 松山 田溶星(정치46-50)동문이 지난 6월 23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96세.

경남 함양 출신인 田동문은 1938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경성제대 부속병원에서 의사로 재직했으며, 광복 후 모교 정치학과에 입학해 1955년 고등고시(7회) 사법과와 행정과에 동시 합격했다. 田동문은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형

사지방법원 재판장 등을 지낸 뒤, 1965년 다시 의학에 관심을 돌려 모교에서 내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7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서울 라이온스 회장, 국제라이온스 부총재, 본회 부회장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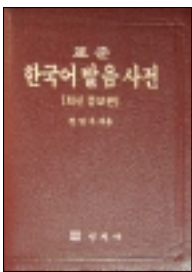
1998년 본회에 1천만원의 장학금을 출연해 맹인 및 시각장애인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차녀 田惠子(국문 61-65 경원대 교수), 4녀 田哲子(작곡72졸 뉴욕거주), 큰사위 林吉生(건축55-59 前동북건설 대표), 둘째사위 洪性啓(법학60-64 변호사), 셋째사위 李官炯(행정57-61 법무법인 율곡 대표변호사), 넷째사위 郭承容(의학71졸 뉴욕 의사)동문 등이 있다.

신 간

표준 한국어발음사전

— 全英雨 지음



KBS 아나운서실장과 수원대 교수를 지낸 全英雨(국어교육 53-57 수원 과학대 초빙 교수)동문이 방송과 대학 생활의 실천 경험을 토대로 확실한 감증을 거친 표준 한국어발음사전을 출판했다.

全동문은 1960년 발음사전 편찬에 착수해 47년만에 6만5천여 항목의 표제어와 신어 1천여 개 항목을 보충한 최신 증보 5판의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책은 1988년 당시 문교부 고시 표준 발음법 규정에 입각해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며,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국제 음성기호(IPA)의 발음 표기를 병기하고 있다. (민지사판·값 38,000원)

부동산의 역사와 철학

— 吳洪哲 지음



한국 과학 기술정보연구원(KISTI) 전문연구위원인 吳洪哲(지리교육 54-58 前동국대 교수)동문이 부동산을 역사·철학적으로 정리한 책.

이 책은 부동산의 개념과 내용 체계, 토지의 탄생과 성장, 주택의 변천, 가격결정의 요인과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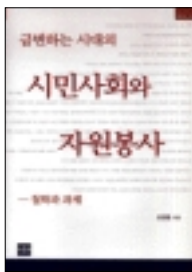
성격, 지역개발과 불균형, 개발과 보전의 상충관계 등 부동산의 역사와 각종 이론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또 국토의 올바른 이용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선량한 국민에게 유리한 장소선택의 지혜를 담고 있다. (부연사판·값 30,000원)

급변하는 시대의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金璟東 지음



모교 사회학과 金璟東(사회 55-59)명예교수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에 관해 이야기한 책.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I부는 주로 ‘철학’편으로 시민사회와 자원봉사의 철학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사회의 이념형성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II부는 한국 시민사회의 몇 가지 쟁점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III부에서는 한국 사회변동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한국의 시민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자원봉사 운동을 펼쳐나가는 구체적 제도와 전략의 과제들을 검토했다. (아르케판·값 19,000원)

움(민구의 작은 발견)

— 梁性喆 지음

주미 대사와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을 지낸 梁性喆(정치 58-64 고려대 석좌교수)동문이 살면서 겪은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담은 자서전적인 내용으로 구멍에서 나



온 인간이 죽어서까지도 구멍으로 들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임을 일깨워 준다.

梁동문은 이 책에서 지난날의 자랑거리를 일부러 내세우거나 잘못된 것들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또 이제까지 이 책 저 책을 읽으면서,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스스로 겪고,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한 묶음으로 모았다고 말한다. 珉龜는 梁동문의 아호. (현대시문학판·값 20,000원)

똑똑한 쥐

vs 멍청한 인간

— 金元仲 옮김



미국 생명 윤리학자 아더 카플란(유엔 생명윤리센터 원장)의 재미있고 놀라운 생명윤리 논쟁을 金元仲(의학 82-86 시너지병원장)동문이 우리말로 옮겼다.

이 책은 인간복제 윤리에서부터 줄기세포와 유전자 조작, 수혈과 장기이식, 의료서비스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과학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 책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金偶衡(미생물 80-84)교수, 한국외대 文在完(공법 81-85)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 늘봄출판사(대표 趙楡顯 수학 82-88·신문 86-90)에서 발행했다. (늘봄판·값 15,000원)

사랑하고 떠나가신 皮千得선생님!

琴兒 皮千得선생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97세였습니다.

나신 날이 1910년 5월 29일이었고 돌아가시고 장례한 날도 2007년 같은 날 생일이었습니다. 우연이라면 우연일지 모르지만, 사람이 나서 죽는 날의 조화는 신만의 뜻이었습니

다. 선생님은 5월을 무척이나 찬미했습니다. “신록을 바라다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오월 속에 있다”라고 읊었습니다.

선생님은 정답고 온화하시며 우아한 성품을 타고나신 분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셨습니다. 풍경의 아름다움이나 옷은 어린이에게, 또는 고독한 친구에게 다가가는 마음씨였습니다.

선생님 주변에는 예쁘고 머리 좋은 젊은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릴케(Rilke)의 말로 그 이유를 보았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는 훨씬 인간적이어야” 반면 히스테리한 여성, 자아도취에 빠진 여성을 멀리하였습니다.

선생님 서재에는 ‘잉그리드 버그만’의 어린 소녀시절, 배우 전성시대의 스틸 사진이 몇 장 붙어 있습니다. 그 귀엽고 청순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면쩍은 말로 “남자가 여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 인생은 끝이야”

또한 “동짓날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어 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굶이 굶이 펴리라”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詩語를 구사한 황진이 – 이런 무서운 재주를 구사한 시인은 어느 나라에도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서울 태생이어서 찾아가실 고향은 따로 없었으나 중국 도연명의 시를 소리 내어 읊기도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 자작 축시를 낭독했던 ‘로버트 프로스트’와는 깊은 친교도 있었습니다. 프로스트의 유명한 말 “시는 기쁨으로 시작하여 歡智로 끝난다”에 대해서 “그 예지는 냉철하고 현명한 예지가 아니라 인생의 슬픈 음악을 들어온 인정 있고 이해심 많은 예지”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글과 시는 바로 선생님의 인격이며 품성이었습니다. 음성은 낭랑하였고 그 속에는 언제나 유머와 위트가 있었습니다.

나는 선생님께서 만년에 쓰신 ‘이 순간’을 즐겨 소리내어 읊곤 합니다.

“...오래지 않아 내 귀가 흠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제9 교향곡을 듣는다는 것은 그 얼마나 찬란한 사실인가...”

선생님을 여의는 영결식은 申秀貞님의 애수가 감도는 피아노 선율에 이끌려 시종 엄숙하게 슬피우는 곡성 속에서 끝났습니다.

선생님은 “사랑하고 떠난 이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金在淳(경제 45-52)샘터사 고문·본회 명예회장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07년 5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07. 4. 1.~5. 2)·일반(07. 4. 3~4. 30)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평생회비

〈이사〉 △강명자 HPM③
△김문곤 법대⑦ △김인철 약대⑦
△김종복 법대⑦ △문정규 공대⑤
△문종수 법대⑤ △배무환 經院⑥
△이진 문리⑥ △이근모 공대⑦
△이남식 농대⑦ △이석우 상대③
△이성관 공대⑥ △이성환 공대⑥
△이태진 문리⑥ △정원박 大院⑦
△정지택 상대⑦ △최만린 미대⑤
△최진석 약대②

〈일반〉 △경종인 농대⑦
△권경중 사대⑥ △김규석 공대⑥
△김대유 상대⑦ △김무겸 법대②
△김상우 법대⑥ △김성환 공대⑥
△김아람 사회④ △김영화 공대⑤
△김청자 미대⑥ △김택규 공대⑤
△김희숙 음대② △남신향 사대⑦
△모영일 AFB⑤ △박영 공대④
△박건우 공대⑥ △박근주 생활③
△박나량 음대⑧ △박민식 사회④
△박영용 농생③ △박익형 공대①
△박태운 자연① △박형주 AMP①
△박희정 음대③ △방용승 공대①
△백몽민 의대⑦ △백명철 공대⑦
△백용수 HPM① △석종성 문리⑤
△송국현 공대⑦ △송두호 의대⑤
△신재광 자연② △양호환 사대⑦
△어선선 상대⑤ △원복종 문리⑥
△유인식 법대⑦ △윤성로 大院②
△윤희용 공대⑦ △이경희 간호⑧
△이남우 사회② △이명숙 문리⑤
△이범희 공대④ △이상우 공대⑥
△이순조 의대⑦ △이영우 공대④

△이용균 법대⑧ △이윤균 자연⑧
△이종구 의대⑤ △이종성 공대⑤
△이종하 공대⑧ △이진희 문리⑥
△이한방 사회⑦ △장금순 수의⑦
△장원정 치대⑨ △장혜자 사대⑦
△전도영 공대⑧ △정윤호 치대⑥
△정혜승 의대⑤ △조만영 공대⑦
△조성우 공대⑨ △주희성 음대⑧
△진하영 농생⑧ △차재근 공대⑥
△채현 공대⑦ △최동수 AIP②
△최웅렬 공대⑤ △최진용 자연①
△최청자 AMR④ △하남규 자연⑧
△한규선 大院④ △한기선 사대⑦
△한상복 문리⑤ △허진 자연⑤
△허만욱 치대⑤ △황태진 공대⑦

이 사

◆인문대 △윤재인⑧ △이정은⑧
◆사회대 △권용발⑦ △김동선⑦
△김선기② △김용숙⑦ △김재홍⑥
△변동희⑦ △안정근⑦ △이종현⑦
◆자연대 △송세인⑦ △이동한⑦
△전승준⑦ △최달영⑦
◆경영대 △김용건⑦ △전한우⑦
△황수연⑦
◆공대 △경신호⑤ △권용수⑧
△김철⑤ △김광욱② △김노수⑤
△김병길④ △김시근⑦ △김신원④
△김연철⑦ △김정덕⑥ △김지섭④
△김진무⑤ △김희준⑤ △류용호⑦
△문석형⑤ △박기찬④ △박승훈⑦
△박종명⑦ △박찬호⑦ △박대권⑤
△박승욱⑤ △백영학④ △서두석⑦
△서완석⑤ △선우중호⑤ △설영화⑤
△손민영② △송부호⑥ △신경호⑥
△신재철⑥ △심명필⑥ △심혜경⑤
△염기대⑥ △오원석⑦ △유웅석⑥

△윤명진⑥ △윤정호⑥ △이동춘⑤
△이장희⑦ △이지수⑦ △전홍우⑦
△정재영⑦ △조규중④ △조명호⑦
△조형제⑤ △진영준⑦ △최돈구⑦
△최상오⑥ △최홍영⑥ △황종구⑤
◆농대 △김시환⑧ △김영철⑥
△김철수⑥ △김학주④ △박정근⑥
△오세승⑤ △유문일⑥ △유원형⑦
△윤오섭④ △이석순② △이성호⑦
△이치섭⑤ △최락현⑥ △홍석현⑦
◆문리대 △권오득⑥ △김상복⑦
△김상욱⑥ △김선길⑤ △김영일⑥
△박경석⑤ △박용안⑦ △변형⑥
△오완영⑤ △이창복⑤ △이형구⑤
△정구훈⑥ △정병일⑥ △홍사덕⑥
△홍영남⑥

◆미대 △남혜숙② △박대순④
△신광석④ △오영희⑦ △이용국⑥
◆법대 △강신원⑦ △강용식⑤
△고왕석⑥ △김기석⑤ △김수남⑦
△김승욱⑥ △김승진⑦ △김영재⑦
△김영훈⑥ △김윤성⑦ △김재구⑥
△김종구⑤ △김종상⑤ △김준규⑦
△김중곤⑥ △김창복⑤ △박만⑦
△박국수⑦ △박상천⑦ △박용석⑦
△박재원⑤ △박준서⑤ △박휴상⑤
△변재일⑤ △서복현⑦ △손제희⑥
△신창호⑤ △신호철⑥ △양영준⑦
△양인평⑥ △여상훈⑦ △오세희⑤
△우의형⑥ △우창록⑦ △유희열⑥
△윤덕순⑤ △윤준원⑦ △이대경⑦
△이성웅⑥ △이용우⑥ △이형하⑦
△전병식⑦ △전재기⑤ △정덕장⑤
△조용무⑥ △최정현⑦ △한경수⑦
△현병무⑤

◆사대 △김기광④ △김대행⑥
△김억관⑦ △김우탁⑦ △김종원⑥
△김천수⑥ △박강문⑥ △박영자④

△신하영⑤ △옥정석⑦ △이석주⑥
△이준선⑥ △정강주⑥ △정봉섭⑥
△정선영⑥ △정은실⑦ △최기숙⑥
△최병순⑥ △최준명⑥
◆상대 △강성원⑥ △구선희⑥
△구영보⑥ △김기현⑥ △김병호⑦
△김준식⑥ △김형만⑤ △김형영⑥
△김홍배⑥ △류해주⑥ △명동근④
△박종한④ △박해룡⑤ △서승원⑤
△석학진⑤ △선종승⑦ △송국현⑥
△엄수명⑥ △유영일⑤ △유진무⑥
△이상득⑦ △이상운⑥ △이용성⑥
△이종수④ △임병대⑤ △장종의⑤
△최형주⑥ △한봉희⑥ △홍순기⑤
◆생활대 △조혜옥⑤

◆수의대 △김오섭⑥ △김인호⑤
△나기식⑤ △박호인⑦ △신현일⑦
△유병문⑦ △이준⑥

◆약대 △김규호④ △김영식⑦
△김종욱⑥ △김충경⑥ △노동출⑦
△백성기⑤ △신박일⑥ △심우원⑦
△우종근⑥ △유도봉⑥ △이종규⑥
△장정일⑦ △정순간⑤

◆음대 △백원정⑥ △신정혜⑦
△이경숙⑤ △이석원⑥ △이오규⑦
△임재원⑦ △장우형⑦ △최승준⑥

◆의대 △강세윤⑤ △고원순⑥
△김윤⑥ △김예원⑥ △김원동⑥
△김홍규⑥ △박용재⑥ △서창해⑦
△오정성⑥ △이도희⑦ △이태호⑦
△전동원⑤ △정규병⑥ △최창운⑧
△하재인④ △한병채⑤ △허준평⑦

◆치대 △권오양⑦ △김기국④
△김병찬⑥ △김여미⑦ △김현풍⑥
△문일환⑥ △박용준④ △백기석④
△손근⑦ △유병도⑥ △이석형⑤
△임문식⑥ △한광희⑥ △한성훈⑥
◆대학원 △김문철⑦ △변정환⑧

△이시운⑧ △최원희⑧
◆경대원 △김선대⑦ △박원봉⑥
△이병재⑥
◆보대원 △정두채⑧ △조경중⑥
◆신대원 △강민창⑥
◆행대원 △최규학⑥ △최순현⑦
△최운지④

◆환대원 △조남건⑧
◆AMP △김승배④ △박수웅③
△정영대④ △조준현④ △최호경⑤
◆AIP △고상언① △박양신②
△이의현② △임자현③
◆ACAD △서찬교④ △오정휘⑤
△이왕열③ △이진영⑤ △주영순④
◆ABP △이계용②
◆SGS △배기룡④ △한영애②
◆APC △송기순④
◆HPM △권기진⑧ △성현재⑦
△이충섭⑧
◆AIC △장한영②
◆GLP △유영덕⑦

일 반

◆인문대 △김능구⑧ △김치하④
△문윤순⑤ △신재철② △이동림⑧
△이동일⑤ △이영만③ △이용태⑧
△장희구⑦ △전상욱①
◆사회대 △고인복⑧ △권용신⑥
△김상우⑨ △김연섭⑦ △김옥근①
△김재중⑨ △박석인⑦ △서재현①
△손도일⑥ △신용석⑤ △양종민①
△이광오⑦ △이면우⑦ △이상룡②
△이상면⑦ △이재봉⑨ △이재홍⑤
△이창수⑤ △정승훈③ △조현문⑦
△조환복⑦ △주창돈⑦ △진형구⑨
◆자연대 △고민섭③ △김두현⑨
△김종준⑤ △김진규④ △모희정⑧
△소상완⑥ △양인상⑦ △엄상영⑦
△원재광⑨ △이명웅⑦ △이정엽⑧
△임완중⑦ △정동주⑤ △좌상훈⑧
△최한⑨ △한상균③ △황민상⑧
◆간호대 △김선영⑧ △김옥련⑥
△박양자⑥ △이명란④ △정숙자⑥
◆경영대 △권문옥⑦ △권정현①
△권태효⑨ △김종훈② △박상건⑤
△박철희③ △박훈기⑧ △이상천⑦

△이재춘⑩ △장기룡⑦ △장대훈⑥
△조승호⑧ △황동철⑦
◆공대 △강신구⑤ △강영미②
△강우영⑧ △구자진⑦ △권혁중⑧
△김 윤⑥ △김 철⑦ △김건남⑦
△김광일⑤ △김규남④ △김대원①
△김동인⑥ △김동주⑤ △김동철⑥
△김명준③ △김방식④ △김성환⑥
△김수광⑦ △김영천③ △김용인⑥
△김인달⑦ △김정근⑥ △김정훈⑧
△김종상⑤ △김철호⑤ △김태현⑤
△김한길⑤ △남동익⑥ △노원섭⑤
△노홍조④ △문인수⑤ △박상혁⑤
△박상훈⑦ △박승엽④ △박용기⑦
△박정웅⑥ △박종후⑤ △박준민⑨
△박형기⑧ △박흥배⑧ △박남주④
△백봉근⑤ △백영방⑤ △백용현④
△변수근⑤ △서광옥⑥ △송은석②
△신소영⑨ △신종훈① △심정원⑨
△안인선④ △안준규① △양동률⑤
△양배근⑧ △양준모⑤ △양지만④
△엄필현⑦ △원종식④ △유동기⑧
△육광수④ △육내승⑤ △이권우⑦
△이근수④ △이덕기④ △이두호⑨
△이상우④ △이상철⑦ △이수남⑥
△이용일⑥ △이원구⑤ △이정원⑨
△이정웅⑤ △이정태⑤ △이종수⑧
△이천만① △이한봉⑤ △이한수⑤
△이해균① △이현명⑦ △임용택⑤
△임종혁⑥ △장동근⑤ △장규홍⑧
△정문장⑤ △정숙철⑤ △정영근⑦
△정용환③ △정운해⑥ △정준식⑤
△조무제⑧ △조용철④ △채규남④
△채수창② △최수준⑥ △최정해⑥
△최정훈⑤ △최종민① △한정빈③
△한택상⑦ △허광엽⑤ △홍경화①
△황환무④
◆농대 △강경원⑤ △고영근⑦
△권태걸⑦ △김갑성④ △김동혁③
△김두만⑤ △김무겸④ △김상후④
△김억년⑥ △김영성⑤ △김용찬⑤
△김육생⑥ △김재인⑥ △김종성⑤
△김준호⑥ △김태호⑧ △남현석⑧
△목진민② △박 호⑤ △박기하④
△박동훈⑧ △박래정⑥ △박명규⑤
△박종효⑤ △서정겸⑦ △성기빈⑧
△신재인⑤ △신정재⑤ △신휘현⑤

△안건용⑤ △안정환⑦ △안희철⑧
△유재호⑧ △유철호④ △윤성준⑧
△이강세⑤ △이광희④ △이병천⑤
△이봉수⑤ △이우철⑦ △이운규⑥
△이재충④ △이창근⑤ △임광환⑤
△전성익⑤ △전현기④ △정민현⑤
△정지철① △정태원⑦ △조규탁⑥
△조성환⑤ △조수경⑦ △조진태④
△홍순일⑥ △홍준표② △황재순⑦
◆문리대 △강신희⑥ △고석진⑤
△기우탁⑦ △김동일⑤ △김병진⑥
△김상무⑥ △김석도④ △김영철⑦
△김용성④ △김찬근⑥ △김태욱⑤
△나기창③ △남기진⑤ △노동일⑥
△명제영⑤ △박성철④ △박옥출④
△방재환⑥ △변광수⑤ △서군강⑥
△서기원⑦ △심사수④ △안길남⑥
△양영수⑤ △염상섭⑥ △오권태⑤
△오인환⑤ △윤태호⑥ △이승만②
△임창근⑤ △장인협⑤ △정운택④
△조봉계⑥ △주혜경⑧ △천규석⑥
△최규병⑤ △최명근⑦ △최석동⑤
◆미대 △김병욱④ △박상순①
△박선경⑥ △안광성② △이화지⑥
△장윤우⑤ △정사원⑤ △정영조⑤
△정탁영⑤ △허수영①
◆법대 △강도원⑧ △권선용⑦
△기육능⑦ △김기동⑧ △김기섭④
△김기성⑥ △김기현⑦ △김봉환⑥
△김선호① △김성룡⑥ △김영배⑤
△김용제⑤ △김정기⑦ △김종수④
△김호중④ △남택동⑥ △문태길⑥
△박동규② △박민표② △박순백⑥
△박원철⑥ △배찬진⑤ △배화승⑥
△백보운⑥ △서범수③ △서재현⑥
△서현진⑦ △석성환④ △손영섭⑦
△손종대⑥ △신성오⑥ △심형섭④
△양수일⑥ △양재식④ △오현규⑧
△우영화② △유재신④ △윤성근⑦
△이계영④ △이권형⑥ △이상원⑧
△이양구⑦ △이용범⑤ △이정석④
△장 호⑦ △장석주⑤ △장원지①
△장주영⑧ △정수영⑤ △정영일⑦
△정철승⑧ △정현수⑦ △조한룡③
△차종호⑤ △최강호⑦ △하성대④
△한용기⑥ △황은영⑧

◆사대 △공봉숙③ △구자혁⑤
△권영호⑤ △권태원③ △김낙영⑧
△김병국⑤ △김병수⑤ △김상현⑥
△김성태⑥ △김유명⑥ △김종우④
△나동진⑥ △남기종④ △박강희⑤
△박성종⑦ △박성혁⑧ △박정자④
△박종배⑧ △변법식⑥ △변이영⑨
△변재호⑤ △서국언⑥ △성기종④
△신동순⑤ △신태우⑤ △신행범⑦
△우명길⑥ △유석렬⑤ △윤기환⑦
△윤미희③ △윤성원⑤ △이경남⑤
△이상민⑧ △이수창③ △이승립⑥
△이승우⑥ △이왕근⑦ △이종진⑦
△이준형⑦ △이훈상⑤ △임복희④
△임서정⑥ △장경원① △장병덕⑤
△장영호⑦ △장제흥⑤ △정구옥④
△정하경⑧ △조민식⑤ △조세형⑧
△주상훈② △최영춘⑤ △최원규⑤
△최형우⑥
◆상대 △강영중⑥ △김방지⑥
△김봉환④ △김선태⑥ △김영희⑤
△김장현④ △김재진④ △김태구⑤
△나웅배⑤ △남윤우⑥ △박광철⑤
△박영철⑤ △박용만⑥ △박원준⑥
△박인규⑦ △배선홍④ △배종섭⑤
△변원옥④ △신훈태⑤ △양재욱⑤
△양희문⑤ △오길영④ △오우현⑤
△윤지원⑤ △이대영④ △이세장⑤
△이홍준④ △임한석⑤ △전영배④
△정영주⑤ △정조흥⑥ △조한영④
△허남린⑤
◆생활대 △권진숙④ △김경애⑦
△김옥순⑤ △안계주⑦ △육완진⑤
△윤혜원⑧ △이재선④ △전상숙⑧
△전영숙⑦ △조혜경⑦
◆수의대 △구용희⑤ △권순호⑤
△남궁선⑤ △박기환④ △백영환⑤
△우영제④ △유인광⑧ △전은진⑥
△정진화⑤ △최영일⑤ △최창열④
△허정희⑥
◆약대 △김소준③ △김재백⑤
△김홍중⑤ △문현영② △박동순⑤
△박정식⑤ △양승국⑤ △이윤상①
△이재욱④ △정인명④ △정현경⑧
△조지웅⑤
◆음대 △김혜지② △문명자⑥
△박상현⑤ △박성진② △윤기숙⑧

△이신희⑦ △이은호⑥ △이혜정⑧
△이효순⑥ △임정선⑤ △최순복⑧
△한은진⑥ △현병화④ △황영기⑧
◆의대 △강준원④ △계수덕④
△구본희④ △김세엽⑦ △김애식⑦
△김용식⑦ △김용진⑥ △김종만⑤
△나금성⑤ △남기세⑥ △박성근⑧
△박양수⑧ △박종신⑧ △박훈영⑦
△신용찬④ △엄원호⑥ △위정봉⑤
△이 양⑥ △이원로⑤ △임재인⑥
△정승용⑤ △정용화⑤ △한성민⑦
△한인권⑦
◆치대 △고석호⑧ △고영식⑥
△김광주⑦ △김기홍⑤ △김용식⑧
△김우종④ △김유진⑥ △김의배⑤
△김재윤② △김종택⑤ △김창희⑥
△김화봉⑦ △김효순⑥ △박동귀⑤
△백경동⑥ △서가진⑦ △서성구⑦
△설창환⑥ △오세웅⑨ △오안민⑥
△원철희⑤ △유현호⑤ △이미대⑥
△이병현⑦ △이세영⑥ △이장훈⑤
△이찬호⑥ △임윤식⑦ △전승호⑨
△정호선⑦ △조봉연⑤ △현영민⑨
△홍금표④
◆대학원 △권영신⑤ △유장훈⑥
△윤도순④ △장택중⑧
◆경대원 △이범신⑥ △임청원④
◆보대원 △박상욱④ △양정희⑧
△여현태⑤ △정해진④
◆행대원 △강석준⑦ △강인준⑦
△김용호⑧ △김인동⑤ △남광수⑦
△심윤수⑧ △이성기⑥ △인호석②
△한철수⑥ △허성두⑦
◆한대원 △강은순⑦ △이강건⑦
△정찬옥⑨ △황보영⑧
◆AMP △금승호⑤ △김기탁⑧
△김수환⑤ △김정자⑤ △김진배⑤
△김홍식③ △김흥주⑤ △노연웅④
△박엽래⑤ △박영대① △박재율⑥
△신종규④ △오동빈② △우영태④
△유영걸⑥ △유준배④ △이병성②
△이시원④ △이영태⑤ △이윤로⑤
△이진호③ △이한규③ △임종아⑤
△장윤태⑥ △정일기⑤ △조인상②
△최기덕④ △최상남③ △최영수④
△최종원⑥ △하신희⑥
◆AIP △고승영⑤ △김문웅④

△양승희⑧ △양희준⑥ △오태호③
△이덕영③ △이인창⑤ △임치일⑧
△조우장③ △최명욱⑦ △추현식③
△하우식③
◆ACAD △박태유④ △송성장⑤
△신태희③ △신헌대③ △이창길⑤
△이필우③ △전영배⑤ △지태욱②
△최열근⑥
◆ABP △구태근⑦ △김영길②
△김종엽⑨ △문종필⑧ △서갑석⑥
△서승원③ △송기덕③ △심상렬③
△심종식③ △오정남⑤ △이규진⑥
△임필수② △최원우②
◆SGS △김광호⑦ △김관욱⑦
△김재웅⑦ △박재준⑦ △우재하⑦
△이민관⑦ △정명교⑨ △황종현⑦
◆APC △강석훈① △임광수①
△임희수⑦ △조규식② △최출락②
◆HPM △김종대⑥ △김진성⑩
△성수자⑨ △이태화⑨ △정승혜⑨
△정지문④ △최선규⑨ △최진호⑨
△홍성희③
◆AMPP △강병순⑥ △김명기①
◆AIC △김문오② △김승시②
△박규태② △이상조② △임진환⑦
△전동호⑨ △지춘우②
◆AMPFRI △권태봉④ △한정기①
◆ACPMP △김귀봉② △남순우③
△서종욱③ △장기창③
◆GLP △김우관④ △노재기⑨
△유영식④ △이동향⑨
◆ALP △안종만③
◆ANMP △김미란③

분담금

◆브리질지부 1,000달러
◆필리핀지부 500달러

5 월 계 : 32,910,000원
평생회비 : 32,700,000원
입 회 비 : 820,000원
총 계 : 683,684,283원